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요가 넘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이방인 같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장 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3월 5일 (토) 제 157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고난 겪어본 자, 난민 길라잡이 되다!

CT, 시리아 난민 돕는 유럽 집시크리스천의 고난 역사와 교회 성장 소개

집시 교회들이 동유럽과 서유럽의 접경 지역에 있는 난민들에게 식량과 의류를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집시교회를 목회하는 한 목회자는 크리스천투데이 투데이(CT)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우 큰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난민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태도가 우리 집시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입니다."

따라서 CT는 그리스에서 크로티아까지의 여정과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크리스천 집시들의 활약상과 교회 성장을 소개한다 (Refugees on the Roma Road: In Europe, Christian 'gypsies' best understand those fleeing Syria and Iraq).



고난을 겪어본 집시 기독교인들이 난민들을 돕고 있다.

알렉산더 수보틴은 난민들을 만나게 되기 몇 달 전에 꿈을 꾸었다. 31세의 집시 목사인 수보틴은 꿈에 기차역에서 걸어 나오는 무리를 보았다. 전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들임을 직감했다. 수보틴 목사는 지난 가을 세르비아 북부 칸지야(kanjiza)에 있는 난민 캠프에 500꾸러미의 식량을 처음으로 가져다줄 때 그 꿈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 난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보틴 목사는 말했다. 그는 집시 교회 두 곳과 15개 가정교회를 세르비아 북서부 지역에서 이끌고 있다. 그리스에서 크로티아까지 뻗어있는 동유럽의 "난민 고속도로"(refugee highway)를 따라가는 많은 크리스천 집시들처럼 수보틴은 시리아나 이라크 등지의 위험 국가들에서 피신해 나오고 있는 가정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

다. 난민들의 처지에 수보틴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 오랜 세월 "집시"로서 겪은 상흔을 갖고 있는 민중이 그가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에는 약 1,100만의 집시 인구가 있다. 집시는 자기네 국가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 그룹의 하나다. 지금 이들에게서 거대한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시 크리스천들—대부분 오순절 교인들—은 유럽의 다른 크리스천들보다 피난과 빈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더욱 깊이 이해한다. 집시들이 겪은 추방과 탄압의 역사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이 가장 최근에 입은 큰 상처는 1990년대 구-유고슬라비아와 코소보 지역에서 발발한 전쟁의 틀바구니에서 수많은 집시들이 난민이 된 것이다. 당시 그 지역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집시들은 구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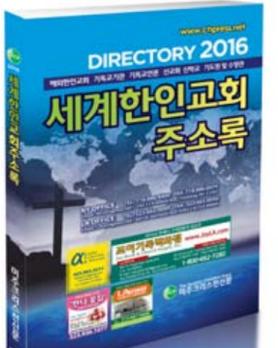
품을 받는 데서 제외됐고 여권 발급도 거부당했다. 그리고 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부족은 그들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오늘날 동유럽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집시 공동체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보다 실업·문맹·빈곤 비율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집시들은 현재 유럽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는 동시에 유럽을 동경하는 난민들의 마음 또한 잘 이해한다. 현재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난민들처럼, 집시들에게도 독일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물론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집시들에게는 최종 종착지다). 그들은 일자리, 사회적 혜택, 또는 정치적 망명(집시 목회자들은 뒤의 두 가지를 양태에게 권장하지 않는다)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자신들이 겪은 경험과 역사 때문

에 집시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난민위기를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고 있다고, 소크라트 아포스톨로프스키는 말했다. 마케도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집시 교회에서 열 한 가정 이 독일로 이민 가는 것을 보았다. "오랜 세월 집시들은 여러 차례 난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됐습니다." 라드코 크라트소프가 말했다. 그는 불가리아 예수전도단(YWAM)의 집시 지도자다. 불가리아는 지난 해 터키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해 불법 난민 행렬을 차단했다. 집시 정체성에서 "희생자" 마인드가 드러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크라트소프는 점점 더 많은 집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시를 창조하셔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8면으로 계속)

사 고

'2016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6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762-1200
할렐루야 기독백화점 (718)762-0011
할렐루야 기독백화점(NJ) (201)373-002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OC) (714)636-7430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복음사(OC) (562)865-4949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백화점 (213)380-8793

▶ 기타지역

커투터컷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583-0191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텍사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게사 (704)332-5656
북가주한인기독교티비 방송국 (408)433-0001
조지아 아틀란타생명의말씀사 서점 (678)957-1021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스캘리아 사명으로 대권정국 더욱
난항 예상! 2면



'사랑 vs. 응징' ...교단별 해석 달라 3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중국 종교정책의 상반된 신호
노봉린 박사 13면

OC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하는

3 Days of Miracles in the Bible

성경 통독훈련을 위한 "기적의 3일"

이민 생활이 너무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우리를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4:4)

이 3일은 당신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성경의 맥을 뚫어 주는 기적의 3일이 될 것입니다.

강의 일정

3월 7일 (월)

서론, 창조, 족장시대(창세기), 출애굽, 광야시대(출, 레, 민, 신), 가나안 정복시대(여호수아), 사사시대(삿, 룻)

3월 8일 (화)

통일왕국시대(삼상, 삼하, 왕상, 대상, 대하), 분열왕국시대(왕상, 왕하, 대하, 선지서들), 포로시대와 포로 귀환시대(선지서들)

3월 9일 (수)

중간기시대, 복음서(마, 막, 눅, 요), 사도행전,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 장소: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시무)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강사: 주해홍 목사(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대표, 90일 성경일독 통큰통독 저자)
- 대상: 목회자, 사모,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회비: \$100(개인), \$150(부부 혹은 단체), 점심과 강의 Workbook 비용은 무료입니다.
- 문의: 서기 - 박용일 목사 714.726.8887 / 부서기 - 노상철 목사 562.556.4302

주관 OC 기독교 교회협의회,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후원 OC 목사회, OC 평신도 연합회, 효사랑선교회, GBC, CTS, CH TV, 두란노





시론

사슴나무골에서(27): 풀러신대원 한인 목회학박사과정 해체에 관한 유감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필자주] 김세윤 박사님께서 지난 몇 주를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시어 먼저 학교 당국에 알리고 학우회 대표 김창섭 목사를 통해 풀러 신학교 학생 동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보내셨습니다. 김 박사의 글을 조금 간단히 편집하여 이 지면에 옮겨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한인 목회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풀러 신학대학원 한인 목회학 박사 과정을 사실상 해체하고 선교대학원 중심의 새 Korean Center를 출범시키

에 대하여(2/25/16)

Fuller신학교는 2월 4일 한국어 프로그램들의 구조조정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퍼지면서 여러 제 학생들, 동문들, 교계 진지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 여기 그 구조조정 내용과 문제점들을 모든 재학생들과 동문들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두 주 동안 Fuller 총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한인 학생들과 교수들을 만나 그들의 관심사들과 견해를 듣는 성의를 보여, 혹 이번 구조조정 내용에 대한 재고가 있을지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 Fuller의 지도부로부터 전달된 소식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보다는 자신들의 구조조정을 견디하면서 겨우 약간의 보완대책들을 내 놓으며 우리 한인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Fuller 신학교는 지난 2월 4일에 오는 3월 25일자로 신학대학원(SOT) 소속 한인목회학박사(KDMin) 프로그램을 선교대학원(SIS)의 한국어 프로그램들과 함께 묶어 선교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Korean Center로 통합할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신대원의 목회학박사과정(KDMin)을 위해 일해온 직원 4명 중 원장 황진기 교수는 오는 3월 18일 자로 보직 해임(6월30일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KDMin 원장인 황진기 교수가 해임되는 바람에 부득불 KDMin의 설립자요 전임 원장인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절차상, 그리고 내용상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1. 절차상 문제들: 지난 몇 해 동안 재정난을 겪어온 Fuller신학교는 주로 하급직원들을 해고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데, 이번 구조조정은 그동안 학교 측에 막대한 재정적 공헌을 해온 KDMin 프로그램을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적자를 내거나 재정적으로 힘든 다른 영어권 프로그램들은 손대지 않고, 후자를 내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들만 그 흑자 폭이 지난 2-3년 동안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폐합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Fuller의 Labberton 총장은 우리 학생들과 동문들, 그리고 한국의 교계 인사들로부터 갈등하는 두 과정들(SOT와 KSIS)의 통합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번의 구조조정을 정당화합니다. 총장은 일부의 몇 마디 사건에 휩쓸려 선불리 두 과정의 통합을 밀어부쳐서 도리어 더 큰 갈등을 야기한 것입니다. 이 발표 이후, 이곳 Pasadena에서는 KDMin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의 다른 한인학생들까지 크게 반발하여 두 과정 사이의 갈등이 훨씬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통합 결정을 신대원의 한인 교수진과 일체 상의 없이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KDMin을 설립하고 21년간 섬겨온 김세윤 교수와 업에선 교수, KDMin Committee의 위원들로 수고해온 이학준 교수와 이경진 교수와도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현, KDMin 원장인 황진기 교수와 부원장인 조의완 교수와도 아무런 상의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7면으로 계속)

스캘리아 사망으로 대권정국 더욱 난항 예상!

미 언론, 대법관 후임 선정 논란과 대선에 미칠 변수 예상

지난달 13일, 사망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엔터니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선정이 험난한 과정을 겪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인 오바마 대통령은 "머지않아 후임을 지명해 나의 헌법상의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임기 내 대법관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화당의 반대는 무엇보다도 차치 연방 대법원의 5대4 보수 우위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5명의 보수적 대법관을 이끌어온 좌장 역할을 해온 인사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부재로 보수 성향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라렌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등 4명으로 줄었다. 반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4명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스캘리아 대법관이 남긴 빈자리에 진보적 인사를 지명해 대선의 해에 각종 민감한 정책들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일상치리로 처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관을 제스티스(Justice), 즉 정의라고 부른다. 그제 말장난만은 아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미국 대법관들은 헌법을 해석하고 법률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림으로써 정의와 도덕의 지향점까지 제시

민감한 쟁점들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은 후임 대법관 임명 시기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실제로,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TV 토론에서 "한 세대 동안 법정에서 (보수가) 영향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연기를 주장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상원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

오바마, "임기내 공석 채우겠다 vs 공화당, "차기 대통령에 넘기라"

이민개혁, 낙태, 공무원 노조, 오바마케어, 기후변화 등 쟁점 산재

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죽기 전까지 신분 보장이 된다. 한마디로, 이들의 절대적인 권위는 '종신제'로부터 유래된다. 따라서 임기도, 정년도 없다. 스스로 은퇴하거나 죽기 전까지는 신분이 보장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나 의원들과 달리 이른바 '선출되지 않은 권력(Power without election)'이다. 그러나 일단 대법관에 임명되고 나면 확고한 위상을 보장받는다. 연임을 해도 8년밖에 집권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달리 미 대법관은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에는 선거를 흔들만한 메가톤급 현안이 여럿 걸려 있다. 대표적인 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판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 말에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이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낙태와 공무원 노조 문제, 오바마케어, 기후변화 등 여러 쟁점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진보 성향 인사가 공식인 대법관 자리를 채우면 지금까지 보수 우위였던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뒤바뀌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중심적인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승인으로 이뤄지는데 공화당 우위의 상원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BBC방송은 "상원에서 대법관 승인이 나기까지 125일이 걸린 적도 있다"며 "상원 위원회의 청문회 날짜를 더디게 잡거나 승인 투표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어떤 후보에게든 공화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후임 대법관이 채워지지 않고 8명이 심리될 조짐에 찬반이 동수가 나오면 합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마당에

령은 내년 1월 20일까지 미국의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고,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도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더라도 투표를 해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도 "연방대법원의 공석이 1년 이상 지속될 일은 최근 없었다"며 "공석을 채우지 못하면 상원의 가장 근원적인 헌법상 책임의 부끄러운 포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의 해였던 1988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인준됐던 사실을 들며 대선과 대법관 선정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3월 13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시계 오전 2시를 3시로 돌려야. 올해 서머타임은 3월 13일(주)부터 시작된다. 새벽 2시를 3시로 한 시간 빨라진다. 주말에베에 늦지 않도록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시간을 돌려 놓아야 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편집국장: 서유원.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30th Anniversary (1986-2016). Global talent development and training.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Study Options: On Campus, On-Line, Blended. Contact: (636)327-4645, usa@midwest.edu.

'사랑 vs. 응징' ...교단별 해석 달라

뉴스위크,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범죄자 처벌 유형 차이 보도

하나님의 응징을 믿는 사람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반대하고, 용서를 믿는 사람은 갱생 프로그램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뉴스위크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보도한다(Whom Would Jesus Lock Up? How Christians View Crooks).

클라렌스 대로우(Clarence Darrow)의 말이 맞았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는 형사재판 피고인과 증인에게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 '장로교인이 침착하고 비판적인 표정으로 배심원석에 앉는다면 그 사람은 배심원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피고측 변호사로 유명했던 대로우는 1936년 에스콰이어 잡지에 기고한 에세이 '배심원 선택하는 법'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무덤처럼 차갑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지만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존 칼빈과 영원한 단죄를 믿는 사람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또한 대로우 변호사의 충고를 뒷받침한다. 복수의 신을 믿는 사람은 죄수가 사회에 복귀하는 걸 반대하고, 하나

완전한 침묵 속에 낮과 밤을 보냈다"고 논문은 적었다.

사법행정정책리뷰에 게재된 논문은 범죄 보고서에서도 처음 다뤄졌다. "퀘이커 교도는 범죄자 행동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며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빛을 가진다고 믿었다."

반대로, 같은 시기 뉴욕에서는 전통 칼빈주의와 정교도에 뿌리를 둔 복음주의자가 주도권을 잡았다. 인간의 타락과 악한 본성을 믿는 종파다. "뉴욕 개혁파의 눈에 태형은 교도소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야 죄수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범죄자 사회 복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기 위해 2007년 입안된 기념비적 법안 '제2의 기회법(Second Chance Act)' 또한 의회 토론 중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정치적 지원을 규합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근본주의자일 경우 범죄자와 죄수에 대해 더 엄격해진다 주장이 아말로 옛날 연구를 근거로 삼은 구닥다리 이론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학자도 있다. "성경을 고지식하

유니테리언, 전과자에 우호적...로마가톨릭 가장 냉정

기독교 주요 종파와 복음주의는 중간적 입장

님이 사랑과 용서를 베풀다고 믿는 사람은 갱생이나 복귀 프로그램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용서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범죄자 지원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게 미국 미주리 주 주민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조사 결과다.

과거 연구도 미주리 주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근본주의자는 처벌 쪽으로 기울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경전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네바다대학의 모니카 밀러 교수는 말했다.

밀러 교수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도나 근본주의자는 사형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약보다 구약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종교의 여러 특성은 사형 및 판결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근본주의적 믿음을 가진 사람, 신이 살인자의 사형을 명령한다고 믿는 사람, 자신의 종교가 사형을 지지한다고 믿는 사람은 배심원 후보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2007년 발표한 기고문에서 밀러 교수는 밝혔다. "하나님의 힘은 사랑에 있지 위

압적 무력이나 처벌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루이지애나 감리교회 목사이자 트레인대학과 로올라대학 기독교센터 이사장으로 있는 모건 가이튼은 말했다. 십자가야말로 범죄자를 향한 신의 용서를 상징한다고 그는 믿는다. 예수 또한 율법을 어긴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린 도둑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참회하기도 전에 목숨을 빼앗기는 건 비극이라고 믿는 가이튼 목사는 사형을 반대한다. "구원과 죄 씻김을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리 냉혈한 살인마라 해도 사형당해선 안 된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고 가이튼 목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썼다.

"예수가 이들을 구원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자연적 죽음을 맞기 전 마지막 숨을 내쉬 때까지 용서를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기독교 분파는 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 "무고하게 흘린 피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원한다"고 남부침례교대회 윤리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의장은 2014년 팻캐스트에서 창세기를 인용해 말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게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사형을 옹호하는 무어 의장은 권력기관이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표현하기 위해 로마서를 인용했다. "공권력을 통한 단죄의 같은 악인에게만 휘둘러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칼을 받아야 하는 건 악을 행한 자이지, 무고한 자가 아니다."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의 역사는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논문 '죄수의 사회 재편입에 대한 신앙과 대중의 지지'에서 저자 갈란트와 동료 연구진은 말했다. "식민시대 미국에서 처벌은 그 성격상 신체적 처벌을 의미했다. 잔인한 육체적 형벌이었고 '지는 죄'에 대한 보복의 의미였다"고 주장한 논문은 미국 혁명 이후 죄인 교정에 대해 용서를 주장한 퀘이커교와 단죄를 주장한 복음주의 사이의 대립을 설명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퀘이커교가 정치적 운동을 이끌며 '회개에 기반한 처벌'을 원칙으로 교도소를 설립했다. 이곳에서 사회와 격리된 죄수들은

게 믿는 사람은 용서에 관한 성경의 격언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이스트캐롤라이나대학 마크 존스 교수는 말했다.

그는 성경강림파와 남침례교 또한 다른 종파와 마찬가지로 죄수의 사회 복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존스 교수는 전과자를 향한 기독교인의 태도 연구를 최근 마무리했다. 연구 결과, 전과자에게 가장 후한 사람은 일원주의를 믿는 유니테리언 교도, 가장 냉정한 건 로마가톨릭 교도였다. 기독교 주요 종파와 복음주의는 중간적 입장이었다.

1936년 에스콰이어에 기고한 글에서 대로우 변호사는 가이튼이나 감리교·무어·남침례교도가 80년 후 범죄자와 피고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예상했다. 동정심이 많은 배심원을 선택하기 위해 그가 피고측 변호인에 내민 조언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확고해 보인다.

"감리교인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들은 흠에 더 가깝다. 이들의 믿음은 사랑과 자선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대로우 변호사는 썼다. "감리교와 침례교 사이에 선택해야 할 때 온기를 원한다면 감리교 쪽으로 가라."

소망 칼럼

교회다운 교회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오늘날 교회는 많아도 교회다운 교회는 많지 않고, 교인은 많아도 교인다운 교인은 별로 많지 않다. 교회는 모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인은 모두 교인다운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밝게 비추어주는 교회이다.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다하는 교회가 교회이다.

교회의 기능 중에 첫째는 더러운 죄를 씻는 목욕탕과 같은 기능이다. 사람은

조석으로 이 닦고 세수를 하지만 때로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전신에 묻은 때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잘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므로 심령의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음으로 살지만 주말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때 묻은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회의 기능 중에 둘째는 병자를 고쳐주는 병원과 같은 기능이다. 출 15:26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했고, 요5:2-4에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했다. 베데스다는 병 고침 받는 교회의 모형이고, 예수는 만병을 치료하는 대의사이다. 병원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곳이고, 교회는 마음의 병과 정신병과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는 곳이다. 교회는 심령이 병든 자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병 고침 받는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다. 물론 교회도 신유의 은총으로 육신의 병도 고침 받는 곳이다.

교회의 기능 중에 셋째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과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기능이다.

교회의 기능 중에 넷째는 군대를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은 기능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을 양성해 내는 십자가 군병의 훈련소이다. 정당은 당원 훈련을 하고,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군병 훈련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군병의 훈련을 받는다.

교회의 기능 중에 다섯째는 신부를 단장하는 미장원과 같은 기능이다(벧전3:3-4).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장원에 가서 신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신랑 앞에 나타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은 다시 오시는 영적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에 늘 나와서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심령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성도의 올바른 행실인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다가 훗날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날 때에 뛰어나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교회의 기능 중에 여섯째는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과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능이다. 엡 2:19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다.

교회의 기능 중에 일곱째는 열심히 모이는 기능이다. 교회란 헬라어로 '예클레시아'이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집단, 모임)이란 뜻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자들이 모임으로써만 교회되는 것이다.

교회의 기능 중에 여덟째는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이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다.

교회의 기능 중에 아홉째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는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행1:8).

교회의 기능 중에 열 번째는 교인끼리 인화 단결하여 서로 사랑하고 상부상조하는 기능이다. 교인끼리 서로 화목하고 일심 단결하여 교회가 힘있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기능을 심본 발휘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행2:37-47).

newhopebr@hotmail.com

담임목사님 청빙

북 캘리포니아주 치코 (Chico)시에 위치한 치코 한인 장로 교회 (Chico Korean Presbyterian Church)는 교파에 관계없이 목회의 열정과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 1.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 2.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하신 분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3.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한국어와 영어).

제출 서류

- 1. 이력서 1부.
- 2. 목회 비전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3. 목사 안수 (안수예정) 증명서,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각 1부.
- 4. 목회자 추천서 1통.
- 5. 가능하시면 설교 CD 또는 DVD 2 회분.

참고 사항

-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2. 선임된 분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3. 서류 마감: 선임될 때까지.
- 4. 서류 제출처: Attn: 청빙위원회 / Chico Korean Presbyterian Church 1505 Arbutus Ave. Chico, CA 95928
- 5. 문의: 청빙위원장 (전 해동장로) 전화: (530) 513-3499 E-mail: junhd45@yahoo.com

치코 한인 장로 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거룩한 두려움

우리는 온통 두려움이 팽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두려움이 최고의 두려움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너

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현대 문명은 우리를 하여금 더욱 누리도록 하고 더욱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현대인

은 거기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현대인에게는 그만큼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연탄 한 장으로 하룻밤을 지내야 했던 시절에는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걱정이라야 혹시 연탄 불을 꺼뜨리지 않을 까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걱정의 폭이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핸드폰으로 인해 한 달 지출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자동차가 없어도 교통이 너무나 편리한 세상입니다.

거미줄처럼 기획된 편리한 지하철, 그리고 이용할 버스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자동차를 가져야 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꼭 필요

로 해서가 아니라 이웃이 소유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나도 가져야 한다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지출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출이 많아지니 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부부가 벌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은 이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가정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주말이 되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도란도란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즐거워해야 하는 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바쁘게 뛰어야 문화생활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

경에서 말하는 영혼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을 지경입니다.

왜 세상은 이런 식으로 점점 흘러가게 될까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 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까 두려워하라"(히4:4).

성도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안식(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있을 때 사람은 모두 성도요, 성도된 자는 말아 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고로 성도된 자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부정적 두려

움이라면 신앙적 두려움은 긍정적 두려움 내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 어떤 세상일로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세상일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했다면 약속시간 며칠 전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과연 얼마나 준비하며 정성을 기울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설립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떨지요?

chiesadiroma@daum.net

푸 / 른 / 초 / 장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연회회 회장 이취임식 강단의 뒷면에 걸린 배너에 나타난 학교로고를 보니 문득 두 분의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한 분은 문상회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강의내용 한 토막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체계 늘 무게감 있게 리마인드되곤 합니다. 문 교수님은 한국 사마니즘을 연구한 목사님

라시며 교수식당을 출입하시고 백양로를 거니시곤 하신 분입니다. 그 교수님은 현직에 계시 때엔 교수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퇴직 후에 그것을 깨닫고 강의 시간을 구걸하듯 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나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무엇인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미션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사55:6).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확실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며 회개하고 중생하는 체험을 통하여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게 되어서 부흥성회 강사로 가는 교회마다 이런 간증을 나누곤 합니다.

여러해 전 저는 팜스프링 수양관에서 영성집회 끝날 세족식에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회 끝날 한국인 피택장로님께서 의자에 앉은 제 발을 씻기시는데 갑자기 제가 보니 피택장로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하염없이 울어야 했던 생생한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밤의 사건을 잊을

도 못하고 은혜로운 성공적인 사역의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기도 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를 부를 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소명 가진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보증을표를 선물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표는 보증수표이며 백지수표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리라 열릴 것이니라"(마7:7).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14:14).

셋째, 내가 회개 하고 다른 사람

시하는 바가 큼니다. 어느 날 밤에 도적이 목사님의 사택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무서운 소리로 위협을 했습니다. "두 손 들고 꼼짝 말라!" 그리고 여기저기를 뒤져서 돈을 찾아도 돈도 없고 돈도 없는 것만 얻지 못하자 목사가 이렇게도 돈이 없느냐고 호통을 치더군요. 그리고 사택을 빠져 나가면서 충고를 하더군요. "목사 양반 돈 좀 모아 놓고 사시오"라고 말입니다.

도적이 집을 나간 후에 그 목사님은 많이 울고 회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도적이 두 손 들고 꼼짝 말라고 할 때 저는 정말로 도적의 말에 순종하여 두 손 들고 꼼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게 말씀 하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꼼짝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젼 부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주목을 받은 분이었지만 이때의 상황을 잊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도중에 낙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을 알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미션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 하게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편집자: 본 설교는 지난 2월 22일 가주달보리교회에서 열린 연회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전한 지용덕 목사의 설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미션 (이사야 55:6-7)

자를 자각하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미션을 감당하며 자신은 물론, 맡겨주신 양무리와 주변의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후회함이 없는 소명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궁중을 출입하는 엘리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 신앙을 가진 주님의 종이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사 만사가 다 때가(타이밍)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때가 지나기 전에 할 일을

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인생의 놀라운 자산이 됩니다.

어느 장로님은 자기이름을 별칭하여 '마더사'라 한답니다. 해석하면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마누라 권사님의 신앙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지역에서 병원을 경영하시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부인 권사님의 권유로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의 안수기도 시간이 자기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두 다리를 붙들고 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주를 만난 사건의 체험은 목사의 길을 가는 제게 한량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가까이 계시 때에 그를 부르라"(사55:6).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면 능력을 행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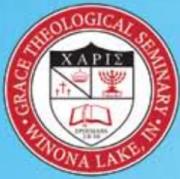
들을 회개 하게 해야 합니다

"악인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며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 하시리라"(사55:7).

이 세대가 사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회개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급선무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산이란 도시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암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은혜로 사는 삶과 행위로 사는 삶은 정반대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고 행위는 세상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전 15:10, 새번역). 행위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고전3:6). 이를 우리는 진인사(盡人事)라 부를 수 있다. 즉 행위가 결과는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행위는 대천명이 더해져야만 한다. 단어도 진인사대천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물속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냥 허락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일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에 의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은혜와는 좀 다른 행위가 있다. 이 행위는 언제 밥을 먹을 것인지, 언제 잠을 잘 것인지 등의 문제에 해당한다. 하루 세 끼의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허용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허락된 삶을 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력(努力)이라는 것도 행위에 속

엔데동산에서 사람을 미혹하여 영원한 죄인을 만든 마귀는,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얻은 사람의 생명을 되찾았으며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다. 행위로 나타나는 한 모습인 노력을 선악과처럼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의 영광을 100% 받고 싶어하신다. 그런 전제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2003년 중국 계림의 선교현장에서 선교영화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순종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순종할 수가 없었다. 파송교회조차 없는 가난한 선교사의 입장에서 가담치도 않은 일(꿈)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핑계했다.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와 목사님에게 그 비전을 주시라고 떠넘겼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대형교회의 목사에게 선교영화를 제작하여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교권에 상영되게 하라는 비전을 주셨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1%쯤은 거침없이 싹둑 자르고 99%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고 하셨다. 너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니 1%가 아니라 0.1%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선교영화를 만드는 엄청난 비전을 주신 이유라고 하셨다. 단 0.1%의 행위조차 허락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사탄의 하찮은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버린 사람에 대한 경계 때문이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현재 우리의 조국은 북한의 핵위협 아래 아주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김정연에 의해 핵이 한반도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한국 국민들에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은 무조건 전쟁은 안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 전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랜스에서 이희은

A: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들 중에 제3차 세계대전, 혹은 핵무기로 인한 인류 대학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지금까지는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최근 북한의 김정연이 하는 짓으로 보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미증유의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나라 공동체는 의에 주리고 평화를 추구하고 보복을 억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즉 십자가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사2:4의 말씀처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 할" 것이기에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나라에서는 전쟁이란 것이 없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

방어적 전쟁...정의확보, 불의교정이 목적

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군복무중에 있는 군인들의 충성과 자기희생과 충성을 정찬합니다. 그러나 전쟁 자체를 미화하거나 찬미해서는 안됩니다.

존 스타트(John Stott)가 쓴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란 책에 의하면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급진적인 평화주의의 입장입니다. 평화주의자들은 산상보훈으로 시작하여 악한 사람들을 대항치 말고 오른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야 한다는 무저항과 비폭력의 길에 헌신하도록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급진적 평화주의자는 그리스도인 16세기 급진적 개혁자들(재침례파)이 채택했고 오늘날 평화교회들(웨이커교회, 메노라 신도들, 모라비아파 교도들)이 간직하고 있으며 역사적 개혁주의 교회에서 상당수의 소수집단이 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의로운 전쟁 전통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전(聖戰)과 윤리적 가르침 둘 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4세기에 어거스틴이 기독교화 하여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와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최후의 수단, 정당한 근거, 올바른 의도, 균형 잡힌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정의를 확보하거나 불의를 바로잡는 것, 무죄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단이 통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전쟁이 적군의 전투원과 군사적 목표를 향한 것이며 민간인들은 공격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전쟁에서는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죽이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비전투원 면제원리는 헤이그 협약(1899년과 1907년) 제네바 협약(1949년, 1977년)에 명시되었고 유엔총회(1970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은혜(恩惠)와 행위(行爲)

되어야 적에 맞고, 말씀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여야 문장이 완성된다. 은혜가 완전하며 완성이려면, 행위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이 된다.

세상은 은혜를 알지 못한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위일 뿐이다. 생명이 깃들어 있는 씨앗을 심었다 하여 그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 깃든 씨앗에 물을 주었다 하여 그것이 생명을 싹틔우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시동을 걸었다 하여 열쇠가 자동차의 주인은 아닌 것과 같다.

다만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지만 사람과 관계된 세상은 모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7,28).

한다.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사람의 순종과 영원한 변화를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부정한다. 에덴동산에서 교묘한 말로 여자를 유혹했던 마귀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과 영원히 변화되는 것을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제하라고 한다. 네가 땀 흘리며 각고의 수고를 다한 결과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냐며 그것은 당연히 한 내 몫이라는 것이다.

교만(驕慢)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에덴동산에서도 그랬다.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열매 앞에서 마귀가 여자를 부추기며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네가 그것을 따서 먹으면 내가 곧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네 위에 하나님을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다. 노력도 그렇다. 네 수고의 결과를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냐는 것이다. 노력 즉 수고의 결과는 당연히 네 몫이라는 것이다.

심고 물을 주는 것으로 자라나는 생명이 부여되진 못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다 사람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다.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까닭이다. 그럼에도

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나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야곱이 압박 나루에서 하나님과 환도뼈가 위굴되도록 겨룬 씨름과 비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피하고 싶은 심정은 처절했다. 그러던 때 하나님은 내 심령에 일침을 가하셨다. 네가 하느냐는 것이었다.

네가 하느냐는 물음은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감동이 "나는 그들이 99%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1%쯤은 내 몫이라는 사람의 행위조차 불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수십만의 성도가 있는 대형교회는 누가 조성했을까? 똑똑하고 박식할 뿐 아니라 언변까지 좋은 목사의 능력일까? 그렇다 치자. 그런 목사는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있을까? 자기 몸에 서 엄연하게 운용되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알고 다스리며 조종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 심장이 어떤 힘으로 뛰어야 그 몸 구성요소에 피를 공급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그 계산대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일까?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 오히려 고백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대형교회가 아니라 나라를 넘어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권세를 가졌다 해도

죄의 삯인 사망에 매여 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셨다. 독생자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을지 몰라도 피하고 싶은 심정은 미혹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시달림 기회를 노리는 사탄을 방해하기 위해 성령을 불침번으로 세우셨다. 사탄에게 여지없이 뿔려버린 에덴동산을 지키시기 위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신 것보다 더 엄중하게 사람을 지키시려고 사탄의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 내신 것이다.

사람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롬3:23).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믿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롬3:27).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세상을 향한 외침이어야 한다. 은혜가 아닌 행위로만 결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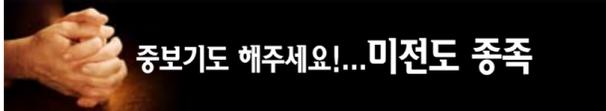
세상은 지금 불행하게도 수고한 노력의 결과에 매여 있다.

(15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 6:00(토)	덴버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주일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6: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환):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환):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환):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환): 오후 1:45 대항영양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항영양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예배: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항영양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배: 오전 10: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주일 5부예배: 오전 12:45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토요일: 오전 6:30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주메스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7:45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환-금): 오전 5:30(토) 오전 6: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도고시에(DOGHOSIE)



부르키나 파소의 도고시에족은 부르키나 파소 불타강 발원지에 사는 로비-왈라족과 문화적 유사 종족이다. 이들 종족들은 삶의 모습, 종교적 신념, 역사 그리고 지형적 배경 등에 있어 거의 흡사하다. 단지 도고시에족은 Gur 언어계통의 Gan-Dogose 방언인 도고시에어(Dorghosye)로 불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도고시에족은 이전에 블랙볼타(Black Volta)강 동쪽 가나에 거주했던 작은 종족이다. 그러나 18세기부터 강을 가로질러 부르키나파소 남중부, 현재 거주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 이주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더 나은 농지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기마 침입자들의 잦은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강 유역에 거주하는 다른 종족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도고시에족 역시 요새처럼 지어진 캠프에 사는데, 그들은 흩어지거나 흠으로 편평한 지붕과 두껍고 높은 벽들이 있는 장방형의 요새들을 짓는다. 도고시에족

은 침입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독화살을 사용하기도 한다.

삶의 모습
도고시에족은 원래 넉넉한 농지를 찾아 지속적으로 이주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은 사탕수수, 수수, 조 뿐만 아니라, 양, 호박 콩, 고추 그리고 다량의 쌀 등을 재배하며 수확의 일부, 특별히 수수발효음료(sorghum beer)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소, 양, 염소 그리고 닭 등의 가축을 사육한다. 근래에는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남부 가나나 토크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농장에서는 남자들이 대부분의 들일을 감당하며 여인들은 파종과 추수를 돕는다. 여자들은 집에 딸린 채소밭을 가꾸고 숲속 부산물을 쪼거나 땀감을 모으고 물을

긴는 일을 하며, 가족의 끼니를 준비하고 맥주를 만든다. 집 짓는 일은 남녀가 함께 한다. 몇 개의 캠프 운도로 구성된 촌락에 살며, 이 거주지들은 가족의 농지 확보와 가족 사육을 위해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다 큰 숲속 농장은 거주지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어머니들은 어린이를 돌보며 아이가 걸을 때까지 모유 수유를 한다.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란 아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합당한 장례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위 누이들은 걸기 시작한 동생들을 돌봐준다. 어린 여자아이는 주로 캠프에서 주위에서 노는데 때로는 물을 길거나 곡물을 빻는 일로 어머니를 돕기도 하며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도와 가축을 돌보는 일을 돕는다. 이전에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결혼이 완전히 성립된 것으로 간

주했으며 그 때까지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지 않았다. 오늘날도 일부는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관습을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남녀들은 서로 눈이 맞으면 집을 나와 곧바로 남자의 집에서 부부로 함께 지낸다. 남자가 결혼하면 캠프에는 새 신방이 꾸며지고 취사를 위한 아궁이들이 곁에서 준비된다. 가내 신전에는 연중 다양한 의식들이 개최된다. 예를 들면 농사철의 막바지에는 춤을 추며 풍년을 축하한다. 가족들 가운데 출생, 결혼 그리고 장례 등과 연관된 의식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식은 은밀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성년식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것들이다.

르므로 무생물에도 영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타계한 조상들의 영과 더불어 자연의 기본 요소들의 영들을 함께 신봉하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집안의 대소사를 굽어 살피는 한편, 땅은 그들의 공동체를 보호하며 도양을 비옥하게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도고시에족의 10% 가량이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단지 5% 정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두 개의 선교단체들이 도고시에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으나 그들의 언어로 제작된 전도용 자료는 전무하다. 보다 효과적으로 도고시에족 공동체를 복음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노력의 증대, 더 많은 일꾼들, 기독교 방송국 그리고 전도용 문서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앙
대부분의 도고시에족은 그들의 전통적인 "정령숭배적" 신앙을 따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남침례회 선교부, 선교사 1000명 감축

세계 최대 선교단체이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남침례회 선교부(IMB)가 1000명 가까운 선교사를 줄이기로 했다고 미국의 기독교 월간 '크리스천티투데이'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축 대상은 선교사 983명과 스태프 149명 등 모두 1132명이다. 이들은 자발적 조기 은퇴나 사임을 제안한 IMB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선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IMB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는 현 4700명에서 370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1993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IMB 회장인 데이비드 플랫(브룩홀스교회) 목사는 "우리의 현재 상태는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편"이라며 "선교사들은 이제 신실한 청지기로서 지속적 헌신과 사역의 탁월성,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래디컬'의 저자로도 유명한 플랫 목사는 2년 전 IMB 회장을 맡아 IMB의 외형과 새로운 선교 전략 입안 등 구조 변화를 주도했다. IMB는 2007년 5271명의 선교사와 2억89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신입 선교사는 해마다 줄었고 금융위기로 교회의 헌금과 기부금이 줄었다. 예산도 대폭 감소해 지난해에는 1억6800만 달러로 떨어졌다.

크리스천티투데이에 따르면 IMB는 그동안 중앙 통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회들의 헌금과 기부금만으로 선교비를 운용해왔다. 선교사들은 개인별 후원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선교사는 사례비로 월 평균 4300달러를 받았으며 자녀교육비와 의료보험은 별도로 지급됐다.

남침례교단은 현재 4만 6449개의 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신자수는 1550만 명에 달한다. 2003년 1630만 명까지 성장한 이후엔 점점 감소해 13년간 80만 명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 수는 증가했지만 교인은 더 늘지 않았다. 2014년에만 20만 명의 신자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침례교단 내에서는 이번 감축을 충격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만한 재정 구조와 선교회 시스템을 재편해 신속한 복음화를 추진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비즈니스와 이주민 분야 등으로 다각화 되는 세계 선교의 판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최근 IMB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적 현실에 놀라지 않으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누님은 170년 이상 IMB를 다스리셨고 앞으로도 주권적 역사하십시오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전 세계 선교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이끄실 것이다. 1000명의 선교사가 물러나는 것은 선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루시 고 미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을 다룬 한국계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판사가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대통령 지명을 받았다.



미국 지역지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고 판사를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고 판사는 불굴의 진실성과 공평성을 지닌 최고의 판사로서 자신을 차별화해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판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근무해준 것을 고맙게 여기며 그의 지혜와 경험이 제9 항소법

원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고 판사는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 부모의 딸로서 워싱턴DC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 뒤에 연방 법무부, 로펌,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등에서 법조인 생활을 이어갔다.

고 판사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판사로 임용돼 한국계로는 첫 미국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고 판사가 연방법원 판사 600여명 가운데 최연소였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세기의 특허재판'으로 불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사건, 애플-구글-인텔 등의 인력채용 담합 등 굵직한 실리코밸리 사건을 처리한 법관으로 유명하다.

그는 상원의 청문회 등 법률로 지정된 인준 절차를 거쳐야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임용이 확정되면 고 판사는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년·최영조) 전 판사에 이어 한국계로는 두 번째로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현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갈등 때문에 인준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통상 설득작업이 더 힘들기 마련"이라며 "게다가 숨진 연방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싼 경쟁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일단 공화당에 포진한 보수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성결혼, 낙태, 사형, 소수파 우대정책 등과 관련한 판결로 주목을 받은 적은 없다.

"성도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

문화선교연구원(원장 임성빈 장신대 교수)은 최근 러시아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스콧 포스트마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성도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 베스트 10'을 번역해 소개했다. 포스트마는 20여년간 교회 개혁과 교육지원 사역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칼럼 등을 썼다.



포스트마에 따르면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목회의 본질에 충실하며 통전적인 균형을 갖춘 목회자였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목회자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양을 돌보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배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외적인 명성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목상을 추구한다.

목회의 본질에 충실한 목회자는 선교 차원에서 교회를 분립 개혁하며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통전적 균형을 갖춘 목회자는 교단 갈등이나 이념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 회심과 사회정의에 관한 복음적 통전성을 추구한다. 자신의 목회를 위해 가정을 희생시키지 않으며 시대 이슈와 흐름을 건강할 눈으로 바라본다.

포스트마는 '이런 목회자는 걱정된다. 베스트 10'도 제시했다. 교회를 자신의 성공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목회자가 가장 걱정되는 목회자였다. 이들은 겉으로는 목회자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성공한 CEO, 스타 연예인을 꿈꾼다. 그래서 교회의 빠른 성장에 목을 매는 특징이 있다. 걱정되는 목회자는 멋진 말과 글로벌 성도들을 유혹하고 깊은 목성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한다. 사람들을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여기고 공동체문화를 가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열심이다. 또 외적인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 하기보다 유행하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만 좇는다. 자본과 외연을 추구하는 소비문화를 따르고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여긴다. 문화선교연구원 관계자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목회자로, 목회자에 따라 교회가 바로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며 "두 리스트

를 통해 자신은 어느 편에 속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伊 동성애자 결혼법 개정안 마련...신임투표 연계

이탈리아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동성애자 커플의 입양 허용 조항을 뺀 개정 동성애자 결혼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 법안의 신속한 의회 통과를 위해 내각 신임투표와 연계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동성애자 결혼법안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법안은 이탈리아 역사상 획기적 진전이라 밝혔다고 이탈리아 방송인 Rai뉴스는 전했다.

마리아 엘레나 보스키 개혁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다시 마련한 동성애자 결혼법안이 신속하게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신임과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 결혼법안의 신속한 의회 통과를 위한 신임투표가 이르면 이날 저녁 시행될 전망이다.

서유럽 주요국 중 유일하게 동성애자 혼인을 인정하지 않아 온 이탈리아는 집권 민주당이 법제화를 약속하면서 지난해부터 이를 계속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주 동성애자 혼인·입양 허용 법안을 찬성해온 야당인 오성운동이 동성애자에 대한 입양 허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심의에 혼신을 빚어왔다.

더구나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한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이 이끄는 신중도우파당(NCD) 역시 동성애자 입양에 반대하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여권 내부의 결속도 흔들리는 상태였다.

신중도우파당 당수인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은 "(동을 주고 구한)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입양을 허용하면 인간이 개발한 가장 나쁜 불법 상거래인' 자궁 임대'를 활성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스라엘 소년, 3천400년 된 가나안 여인 조각상 발견

이스라엘의 7살 소년이 3천400년 된 가나안 시대의 조각상을 발견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이 조각상은 다산의 여신 또는 그 시대의 실제 여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정했다.



이스라엘 유물청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소년 오리 그린렛은 이번 주 초 이스라엘 북부 텔 레호브에 있는 가나안 유적지 주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걷다가 이 조각상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조각상은 어린 손가락 두 개를 합한 정도의 작은 크기였다. 그린렛이 찰흙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자 부조 형태로 조각된 나체 여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 소년은 이 조각상을 북부 텔 테오미 정착촌에 있는 집으로 가져와 가족에게 보여줬다.

심상치 않은 조각상이라고 여긴 가족은 이를 이스라엘 유물청에 기증했다. 이 소년의 어머니 모리야 그린렛은 "우리는 그에게 그 조각상을 고대 물건이며 유물청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고고학자들은 조각상의 여인에 대해 여러 견해를 내놓고 있다. '아스타르테'와 같은 다산의 여신인 우상이라는 시각과 함께 가나안 시대 살았던 실제 여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스라엘 유물청 직원 야르덴나 알렉산드레는 "두 개의 이론 중 어느 쪽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고학자들은 또 이 조각상이 기원전 15-13세기 가나안 시대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분석했다.

'십자가 철거 반대' 중국 목사부, 12-14년 중형

중국의 교회 십자가 강제철거 조치에 반기를 든 중국인 목사 부부가 불법행위와 부패 등의 혐의로 12-1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AP통신은 28일 현지매체인 저장르바오(浙江日報)를 인용, 저장성 법원이 지난 25일 바오귀화 목사와 그의 부인 심원상에게 각각 14년형과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저장성 진화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조직해 정부에 탄원서를 내게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어지럽혔고 약 220만 위안(40만 달러)에 달하는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가 교회운영 과정에서 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로부터 개인재산 60만 위안(10만 달러)씩을 몰수하고 각각 10만 위안 상당의 벌금도 부과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도 등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중국 법원과 언론은 그러나 바오 목사 부부가 십자가 강제 철거에 반대해왔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AP통신은 최근 2년여 동안 중국 당국이 기독교도가 가장 많은 저장성에서 교회에 설치된 십자가 수백개를 건축규정 위반 명목으로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저장성 당국이 2013년부터 십자가 철거 캠페인에 나서 현재 1200개 교회의 십자가가 강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독교 인권단체인 '차이나 에이드'는 이와 관련, "바오 목사를 기소한 것은 그가 십자가 철거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그와 신도들을 형사 처벌한 것은 종교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고 AP는 전했다.

NYT '트럼프 최종 후보되면 공화당 내홍 위기'

'트럼프 지지하기는 진정 '미션 임파블'인가.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아우사이드' 도널드 트럼프가 승승장구하면서 공화당 주류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반(反)트럼프 공동전선도 쉽사리 구축되지 않으면서 이대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결정될 경우 공화당 내홍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를 둘러싸고 공화당의 내분이 시작됐다"며 "공화당의 정체성과 근본 가치에 위기를 겪게 됐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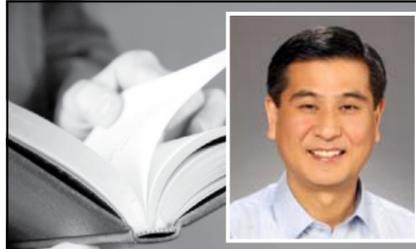
'거품'으로 치부되던 트럼프의 인기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서 공화당 주류의 위기감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쉽사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 대항마로 꼽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경선 도중 하차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크리스티 주지사는 트럼프 편에 섰다.

루비오 의원은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럴 때는 주지사가 "44살 짜리가 내 미래를 운운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 공화당 주자인 밋 롬니는 존 케이스 오하이오 주지사를 향해 반 트럼프 연대의 필요성을 내비쳤으나 케이스 주지사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하차한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루비오 의원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도 아직 성과가 없고, 루비오 지지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던 밋 롬니는 지지선언 대신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5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8) - 교부 아타나시우스

‘흑백논리’는 위험한가?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서 선택의 가능성을 오직 두 가지로 국한되어 생각하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한다. 좌와 우, 선과 악, 삶과 죽음 등을 앞에 두고 중립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하기 때문이다. ‘흑백논리’를 지닌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든 이유는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것을 보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흑백논리’의 위험성이 성경의 진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성도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함과 포용력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삶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열린 귀와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유일한 성경의 진리는 사수해야 한다.

■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로 가는 길

381년, 서방 신학을 지지하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다. 니케아에서 첫 번째 공의회로 모인 325년 이후 두 번째로 가진 역사적인 모임이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신학적 패배를 맞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교회가 니케아 신조를 옹호하는 한 파와, 온갖 정치력을 동원하여 이에 반대하는 다른 파로 분리되어 혼란이 계속되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하여 이들의 대립이 중단되었다. 니케아 신조를 확신하고, 이를 부정하는 이단을 정죄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완패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회의로 가는 길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의 결사적인 방해공작은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교회의 방향성을 더욱 상실하게 하는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소위 ‘중도파’가 출현하

고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이교도 논박”, “성육신에 대하여”, “아리우스파 반박론” 그리고 “아리우스파의 역사” 등에 잘 정리하여 놓았다. 여기에 성경적 진리를 변증하며 이단을 대항하는 그의 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성자는 성자와 동일하다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말씀(성자)을 하나님의 작품으로부터 제외시켜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고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이교도 논박”, “성육신에 대하여”, “아리우스파 반박론” 그리고 “아리우스파의 역사” 등에 잘 정리하여 놓았다. 여기에 성경적 진리를 변증하며 이단을 대항하는 그의 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성자는 성자와 동일하다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말씀(성자)을 하나님의 작품으로부터 제외시켜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성부를 가리켜 ‘주’라고 한다.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는 성부로부터 유출된 말씀이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라고 부르는 것이 옳았다. 성부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 때문이다”(아리우스파 반박론 2, 50). 이 성경구절은 성자가 성부로부터 받은 사역에 대한 언급이란 설명이 옳은 것이다.

이와 같이 아타나시우스는 성자가 성부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니라,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유출’은 ‘나왔다’ 또는 ‘날آمد다’라는 뜻으로서, 그가 본질상 성부와 동일함을 증명한 것이다. “그는 성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분이다. 또한 창조계로 내려오사 많은 형제를 만드셨기 때

안에 계시되, 본질적 존재로는 그 모든 것로부터 구별되어 계신다... 따라서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실 때도 그 육신에 생명을 주셨다. 동시에 온 우주에 생명을 주고 계셨고, 만물에 임재하여 계셨다”(성육신에 대하여, 17). 성자는 분명히 성부가 아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이다. 성자는 성부에게 속한 것을 지니고 계신다.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자신이 하나님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에스더 4:1-17; 요한복음 11:16; 디모데 후서 3:12-4:8; 유다서 1:17-21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세상의 공격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흑백논리’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진리의 원천은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을 부인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는 매우 지혜롭다. 하나님을 도전하여, 성도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전문가이다. 이 사회는 ‘흑백논리’를 들먹거리며 성도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칼과 총을 대신하여, 새롭게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영적 무기이다. 일사조성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가장 조심하여야 할 대상은, 중용 또는 평화주의이다. 신앙보다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할 수 없다. 진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분명히 하자.

성도들은 ‘흑백논리자’들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진리의 수호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성자는 성부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니고 ‘유출’됐다... 상화 내재하시는 분 성도는 ‘흑백논리자’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진리의 수호자’들

였기 때문이다.

‘중도파’는 그 당시 대립하고 있던 양쪽의 주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던 자들이다. 그들의 눈에는 상대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닌 흑백논리의 싸움으로 보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리우스파를 ‘비유사파’라고 부른다. 성자와 성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자와 성부가 동일하다고 보는 니케아파를 ‘동일본질파’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중도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유사본질파’라고 부른다.

‘유사본질파’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의 사상을 따른 세 사람, 즉 체사레아, 에메사, 그리고 니코메디아 등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그 후에 퓌타비스의 주교 힐라리우스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었는데, 니케아 신조가 정의한 ‘동일본질’을 거부하고, 성부와 성자 간의 ‘유사한 개념’을 새롭게 끌어들이

수 없었다.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협소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지적받기도 하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일성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치는 진리는 유일하기 때문이다.

■ 교부 아타나시우스

교회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이를 때까지 진리를 수호하며 험한 길을 걸어간 인물을 소개한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교부 아타나시우스(295?-373)이다. 그가 신약성경의 정경,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27권의 목록을 367년에 처음 교회에 소개하였다. 성경에 능통하였던 그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대의 모함과 위협을 물리치고, 성경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타나시우스는 교회를 보호하

고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이교도 논박”, “성육신에 대하여”, “아리우스파 반박론” 그리고 “아리우스파의 역사” 등에 잘 정리하여 놓았다. 여기에 성경적 진리를 변증하며 이단을 대항하는 그의 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성자는 성자와 동일하다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말씀(성자)을 하나님의 작품으로부터 제외시켜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높이고, 본성상 성자시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가 단지 피조물일 뿐이라면, 그가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해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인정하고, 그를 포함한 피조물 각각에 대해서 ‘피조물이되 피조물들 중 하나와 같이’라고 하여야 한다. 당신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소생’을 ‘발생한 혹은 창조된’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만들어진 작품’처럼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아리우스파 반박론, 2, 20).

잠깐 8장 22장의 내용은 마치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성경구절에 근거하여, 성자가 성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아타나시우스는 이 성경구절을 옳게 해석하는 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는

말씀이셨고 아무것도 그를 가두지 못했다. 오히려 그가 만물을 포괄하셨다. 그는 온 창조계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과일 풀기 (24)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내가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시39:3). 다음은 어떤 저자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을 그의 책에 기록한 것이다.

믿음의 고백에는 단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돼지가 구정물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먹는다. 돼지는 음식물을 거의 씹지 않고 삼켜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처럼 급하게 읽는다.

몇년 전이었다. 나는 어느 레스토랑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성경을 읽고 있었다. 시편을 읽다가 39편에 이르자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그 좋은 커피 향도 사라져 버렸다.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 희미해져 갔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이 말씀뿐이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계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선포)...(시39:3). 이 심오하지만 짧은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단 세 마디만 하셨습니다. 계시, 묵상, 선포.

나는 보았다! 마치 빗줄기가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그분은 먼저 계시가 오고, 그 다음에 묵상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당신은 계시를 경험하고 묵상을 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선포할 준비가 된 것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고백이 개인적인 계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침받고, 변영하고 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복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을 묵상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이들의 고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자는 이 구절이 어느 날 계시처럼 그에게 다가왔으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흥분하면서 고백하고 있다. 정말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일까? 그 책의 저자는 계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계시가 와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이 시편의 문맥을 살펴보자. 1-2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지금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화가 나 있다. 격정거리가

있다. 그런데 왜 계시인가? 계시가 임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다.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묵상하는데 왜 화가 날까? 여기 화는 그런 화가 아니고 불을 말한다. 묵상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이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계시가 임하고 그 계시를 깨닫고 마음에 불이 붙은 것일까? 이 구절을 앞뒤씩 짚어 읽어보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위의 저자는 이 구절을 말씀 묵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런 해석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이다. 과연 그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이 시인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일까? 아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의 문제를 ‘묵상’하고 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다. 묵상과 염려는 같은 과에 속한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묵상이 되고, 문제를 묵상하면 그것은 염려가 된다. 이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다. 그 사람 혹은 그 문제 혹은 그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더 화가 치밀어 올라 속에서 더욱 열병이 났던 것이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위 책의 저자는 계시가 임하고 그 계시를 묵상한 다음 묵상한 것을 이제 선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계시가 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한 것도 아니다. 또한 시인이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앞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을 받아서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결심이 무너진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이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

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눈길을 단 한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시 39:4-13, 부분적 인용).

위 책의 저자는 계시를 받아 기쁘고 즐거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나가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시인은 지금 낙심할 대로 낙심한 가운데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낙망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매달리고 있다.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애원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을 앞뒤씩 짚어 읽어보고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계시에 관한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 구절을 새번역은 그 의미를 살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울만 더욱 커져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어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도 이런 식을 번역한 성경은 없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번역이다. 이런 기가 막힌 번역을 한 역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jinhlee1004@yahoo.com

시론

(2면에서 계속)

2. 내용상 문제들: 이번 구조조정은 KDMin 스태프 중 한 명만 남겨 선교대학원의 나머지 스태프 10명에

덧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공정한 통합이 아니라 KDMin을 사실상 해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KDMin은 지난 21년간 1,500명 이상의 한국 목사들을 건전한 성경적, 신학적 기반 위에 깊은 영성과 바른 도덕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도록 돕고, 여러 목회의 실제적 기법들을 새롭게 익히도록 하는 교육

을 시행하려 애써왔습니다. 특히 많은 이상승배적 복음의 왜곡, 기독교 신앙을 미신화하는 사마니즘적 영적 전성론, 한국 교회를 심각히 타락시키는 양적 교회성장론 등에 맞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도덕성을 양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을 세우고 교회를 갱신하는 데 크게 이바

지하여 해왔습니다. 이제 Fuller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해온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를 심히 약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이러한 질차와 내용상의 문제들을 안고 출범하는 Korean Center가 과연 한국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까, 그리고 Fuller에도 제대로 공헌할 수 있

을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번 전혀 예기치 못한 해고 또는 보직해임 통지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 황진기 원장, 이성은 목사, 서티파니 자매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KDMin Program의 신학과 정신과 목적이 Fuller 내에서 계속 발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Fuller 신학대학원 KDMin 설립자 및 KDMin Program 담당 전임 부학장, 현 Fuller신학대학원 신약학교수, 김세윤 드림

tdspark@gmail.com



청교도 신앙 (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청교도 운동 이후의 '부흥'

- 그 퇴조와 부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상)

현대의 교회들이 점점 침체에 빠지고 있으며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침체에 있던 한 특별한 시점에 성령께서 갑자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부흥의 역사다. 그 중에 청교도 신앙운동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부흥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부흥이 무엇인가라는 정의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때, 이 용어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입장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흥이란 그 부흥이 올 때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며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드와 웨슬리와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 1790년에 이르러까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다. 이때 조지 휫필드가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리 약 70여년의 기간을 부흥의 시대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영국의 교회가 쇠퇴했을까?

1) 그것은 개혁신학의 퇴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초기(1840년대)에 시작된 모든 현대주의 운동은 1860년대에 놀라운 속도로 번져 나갔고 개혁신학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주류를 이루던 신학은 대 부분 칼빈주의였다. 로이드존스 목사는 이때에 교회가 부흥대신에 쇠

진 모든 책들에서 부흥에 대한 문구나 단락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비록 저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 자신이 행하는 일과 사람이 조직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며 여기에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것은 사실 피니의 전도 집회와 그 추진자들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2) 사람들이 교리와 신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또한 반대로 오직 교리와 신학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와 신학에만 집중하면 무미건조한 정통 이지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영적인 삶과 교회의 삶에 대해 태

근대 부흥의 역사가 쇠퇴한 이유는 개혁신학의 퇴조 때문

지적인 이해와 지식에만 관심 · 지나친 현대주의 대적, 감성무시

부흥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교회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통해 나타내고 잠자고 있는 교회 지체들을 일깨워서 활기차게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지적으로만 진리를 깨닫던 것이 새롭고 더 심도 있게 깨닫게 되고, 삶의 전반에서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달아 더욱 깊은 회개를 체험하며 풍성한 구원과 그 능력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새롭게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됨으로 뜨거운 기도를 시작하며, 새로운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으며 회복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흥이 바로 청교도 운동의 시대의 특징적인 역사였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교회는 청교도가 가졌던 부흥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퇴조되었다.

1. 근대 부흥의 역사가 왜 쇠퇴했을까?

필자는 이 쇠퇴의 이유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과 "부흥"이란 책을 인용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가까운 근대 부흥의 역사를 추적해보자. 18세기 초엽에 독일 헤른후트와 모라비아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물결은 미국으로 건너가 요나단 에드워즈의 대가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다시 휫필

드를 가져온 중심 원인을 찰스 피니의 부흥 프로젝트에서 찾고 있다. 로이드존스 목사는 찰스 피니가 교회 부흥을 위해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회의를 소집하여 복음 전도 집회를 조직하고 광고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경향이 부흥에 대한 전체 시각과 사고 구조를 바꾸게 했다고 지적한다. 찰스 피니의 부흥신학은 매우 실용적이다. 그의 책 "진정한 부흥"은 열정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제안한 부흥의 방법론들이 지금도 현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부흥신학은 존 엘리엇스가 올바르게 지적한대로 "인간의 전적 타락, 완고함, 영적 죽음의 상태와 오직 성령의 깨우침과 이기게 하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며" 부흥을 위한 인간의 주도적인 면을 강조하는 면들이 강조되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학식이 더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지적인 방식으로 사물과 환경을 파악해간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적인 면과 학식과 이해와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결국은 성령님과 그의 역사를 망각하게 되고 부흥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매우 멀어져 간 것이다. 이안 머레이가 쓴 "마틴 로이드 존스 중기"라는 책자는 로이드 존스는 "금세기에 성령의 교리에 대해 써어

만해질 위험이 있다. 특히 개혁파적인 관점을 취하는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이 신학에만 관심이 있고 지적으로만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다는 점이다.

3) 부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는 19세기 현대주의를 대적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신학은 이 현대주의라는 대적을 격퇴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동안, 적극적인 메시지의 증거보다는 변증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되어 버렸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합리주의와 이신론이 나타났을 때에도 교회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변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기독교 국교회 시대 이후에 복음 증거와 기도와 선교의 관심이 사라지고 이단에 대한 변증에만 편중했던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무엇보다 부흥에 대한 관심이 약한 것은 지나치게 감성을 무시하며 천성적으로 감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 사고에 집중하는 신학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으로 치우친다. 감정을 나타낼 때 마다 자신의 신앙적인 성향과 다른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감정에 대한 혐오감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불건전한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 그럴 때 심지어 개혁신학을 가진 자들조차도 균

형을 잃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오늘날도 오순절주의와 그 과도한 탈선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결과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를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런 지나친 과민 반응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체험에 대한 불균형의 위험성이 상존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민함과 민감함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데서 부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퇴화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왜 우리 개혁주의가 부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개혁주의가 부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근거나 이유에 대해 필자는 성경에 충실한 근대의 개혁파 청교도라 할 수 있는 제임스 뷰케넨(James Buchanan)의 책을 주로 발췌 인용하였다.

1) 성령의 주권성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개혁신학은 부흥의 요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개혁주의는 부흥을 사모해야 마땅하다. 제임스 뷰케넨(James Buchanan)이 1866년에 쓴 대작 [The Office and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직임과 사역]이라는 책에서 "성령께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어느 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주제를 숙고할 때 성령의 주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편벽성을 가지고, 부흥은 모든 경우에 믿음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갑작스럽고 획기적인 은혜의 역사를 배제시키거나 거부할 정도로 복음 사역의 조용하고 점진적인 성공만을 기대하지만, 그들은 불행하게도 성령의 주권을 지나치게 간과해 버린다"고 기술한다.

근대 미국의 청교도의 주도적인 지도자인 요나단 에드워드는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오늘까지 효과적인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교통을 허락하심으로 수행되어 왔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교회의 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시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항상 특별한 공출의 때에 특별한 폭발을 통해서였다"라고 말한다.

부흥은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부흥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에는 결코 한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는다. 먼저 부흥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도적인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흥을 위한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법을 존중하면서 진리를 방편으로 역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잊어 주시는 은혜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지 한참 고민하던 중에 SAT 학원에 와서 한 두 과목 가르치라는 SAT 학원 원장의 권유로 학원에 발을 들인 큰 아들은 거의 7년을 학원에 붙잡혀 있었다. 딱히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도 없던 차에 학원 원장 되는 분이 동생처럼 생각해주고 대우도 잘해주니 그럭저럭 있던 것이 7년이 되었던 것이다. 누나와 동생이 다 전문직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데 자기는 계속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흑사라도 불편할까 싶어 마음이 쓰였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학교는 아니어도 학원 운영도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니 하고 싶으면 학원 운영을 해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좋지만 엄마들 극성(?)이 피곤하다고 학원 운영은 안하고 싶다고 하더니 대학원을 가겠다고 작년 여름으로 학원을 그만두었다.

작년 여름 이후로 뒤늦게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자격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시험을 잘 봐서 웬만한 원하는 학교는 갈 수 있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문제는 아들의 대학 성적이었다. 아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성적표를 보자고 한 적이 없는, 아들을 너무 믿은 엄마 잘못도 있지만 우리 집안 기복이라고 농담할 만큼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대학 성적은 아마 대학 4년 내내 너무 열심히 데이트를 한 결과인 것 같다. 대학원 갈 생각을 하면서부터 형편없는 대학 성적이 걱정이 되었는지 풀타임 일을 하는 동안에도 두 학기를 열심히 샌디에고로 올라가라하면서 "F" 맞은 두 과목을 재수강하고 다른 선택 과목을 새로 수강해서 다 "A" 학점을 받았다. 그 "A" 학점들 덕분에 웬만큼 성적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하고 이곳저곳에 대학원 원서를 제출했다. 나도 그런가보다 하고 입학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이 피곤했던지 이불도 안 덮은 채 자고 있었다.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잘 자라고 말하니가 아들이 잠꼬대를 하는 것이다.

"엄마, 토비(우리 강아지 이름)가 대학교 성적이 너무 안좋아요." 너무 우습기도 하고 딱하기도 해서 "토비가 대학교 갔었니?" 하고는 내 방으로 왔다. 다음 날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원에 가는 성적이 아들이 기대했던 대로 재수강한 과목은 A학점으로 총 학점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F학점 맞은 것도 0점으로 합산된다는 것을 그 날 알았던 것이다. 아들이 열심히 올려놓은 학점이 별로 도움이 안된 것이다. 철없는 대학시절에 열심히 공부 안한 것이 꼬리표가 되어 줄줄 뒤를 따라 다니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꼬대까지 한 것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좋은 일도 기억하지만 안 좋은 일들도 기억하고 꼬리표를 붙인다. 마치 전과자들이 감옥을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도 전과 기록 때문에 쉽게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 아들 대학 성적이 뒤늦게 철들어서 회복을 시도해도 대학원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늘어지듯 우리의 실수와 죄가 때로는 우리를 뒤 따라 다니며 괴롭힌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니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수없이 많은 주령주령 따라 다닐 꼬리표를 단순히 없애신다.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 아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는 아직 연락이 안왔다.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세 학교에서 입학 허가가 왔으니 감사하다. 우선은 갈 곳이 있으니 말이다. "아들아, 내게도 이 일이 평생 교훈이 되었을 줄로 안다. 그리고 늘 꼬리표를 지워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lpyun@apu.edu

고난 겪어본 자, 난민 길라잡이 되다!

(1면에서 계속)

동유럽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화적 고정관념—집시는 빌붙어 사는 족속이며 정직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가난뱅이—에도 불구하고, 현 난민 위기는 가난한 집시들이 그들보다 더 힘없는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집시들은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들을 도운 집시들은 자신들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준 첫 경험이었으니까요." 존 파파도폴로스가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큰 도시 테살로니키 외곽에 있는 집시 교회의 목사다. "이와 같은 새로운 태도는 우리 집시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보틴 목사의 세르비아 성도들은 다들 가난하다. 그래서 그는 자

기가 꿈 꾸는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가세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에게 도움이 더 필요 합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게 있고, 물과 안식처가 있으니까요." 수보틴은 "헬프 이스턴 유럽(Help Eastern Europe)"이라는 구호단체의 파트너가 됐다. 이 단체는 집시들에 역점을 두고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산하 비정부기구다. 이 단체가 지원하게 되고 부흥이라는 주제로 수보틴과 그의 집시 교회들은 지난 가을 난민 1만 여명을 돌볼 수 있었다.

난민들을 돕는 일에 앞장선 수보틴의 성도들 가운데는 과부들이 많다. "그들은 제게 무엇인가가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

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인 자신들을 돌보신다고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난민에 대한 공감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여전히 매우 힘든 일이다.

"마케도니아의 집시들은 난민들을 다양한 활동으로 돕고 싶어 합니다. 다. 아포스톨로프스키는 말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서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마케도니아에 있는 집시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손길을 보내고자 희망을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시 크리스천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기도가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

가 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동부 지역에서 집시 공동체회를 하고 있는 빌자니아와 데모 니코릭은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통과하고 있는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헝가리 국경이 닫히고 있던 며칠 동안 그들은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과 '국경없는의사회'와 연결됐다. 현재 그들은 크로아티아의 슬라본스티 브로드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있다. 주일에 그들은 주중의 경험들을 성도들과 나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놀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

유럽 집시 크리스천들의 난민구호 활동은 유럽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집시 선교의 한 가닥일 뿐이다. '집시 선교'의 새로운 흐름은 세르비아 같은 곳에서 비전을 품은 집시 지도자들이 계속 연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르비아 곳곳에서 교회 개척과

청년 지도자 훈련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집시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다른 집시 동포를 섬기는 일들, 예를 들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집시스미스스쿨(Gypsy Smith School), 집시와여행자국제복음주의협회(Gypsy and Traveler International Evangelical Fellowship) 등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의 축대는 그레이트커미션 센터 인터 내셔널(Great Commission Center International)이다. 이 중국 선교단체의 지도자인 토마스 왕은 집시들에게서 "복음의 빛"을 느끼고 있다. 2014년, 이 단체는 100명 이상의 집시 지도자들과 30명의 서방 선교사들을 위한 콘퍼런스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주최했다.

바로 여기서 '로마 네트워크(Roma Network)'가 생겨났다. 세 명의 집시와 세 명의 비 집시가 이끄는 이 단체는 "유럽 전역의 집시 공동체들의 변화와 화해를 위한 네

트워크와 연결, 연구"를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 전 유럽 콘퍼런스는 2016년에 열릴 예정이다.

이 네트워크 6명 지도자의 한 명인 미키 캄베로빅은 보완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고 말한다. "일치의 부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일할 교회들을 동원할 수 있는 핵심 국가 지도자들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중부 도시 야고디나에서 사역하는 35세의 집시 목회자인 그는 계속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셔서 유럽에 있는 많은 집시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그렇게 하여 우리가 부흥의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단지 집시를 위해서라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복음을 '안다는 것' 과 '전부' 인 것의 차이

“오랜 세월 진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말씀운동 성경운동 성장론 상담학 등을 전전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성경의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나이 66세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치부 어린이가 때부터 줄곧 들어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평생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복음을 잘 몰랐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한 그 복음에 대해 선포도 했으셨다. 그런데 그 복음을 신앙과 목회의 전부로 여기지 못하므로 인하여 복음을 회중들에게 충분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에 충실치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의 고백을 하신 것이다.

몇 년 전 12월 어느 날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샌안토니오 땅의 한 모퉁이 나무 아래서 필자가 섬기던 교회의 청년 사역자와 함께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다.

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담임목회자와 부교역자 간에는 사역에 관하여, 행정에 관하여, 목회 방법에 관해서는 많은 대화를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대화의 소재로 나누는 기회는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함께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모른다. 청년 사역자의 입에서 마치 구슬을 꿰듯이 성경과 기독교 전반에 걸친 진리의 세계가 확 뚫리는 것 같다는 고백이 있었다. “아 이거네요 목사님, 아 그게 그거였군요 목사님, 아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뿐이라고 외치셨군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통하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없이는 창조의 방법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대 교회가 교회된 자리로부터 미끄러져가고 있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에서 드러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격해 했었는지 모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앙과 사역의 전부가 되면 그 복음이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끓어 올라온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없다. 이 유는 사람이 가진 죄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브리서10:19).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뜻이다.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는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이다.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그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고, 당신이 드리는 기도도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방 종교인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올릴 줄 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부가 되는 것이다.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린도후서5:5).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는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인가?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부라 될 때 비로소 그 십자가 복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부흥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 및 총력전도집회

Azusa Now, 4월 9일 오전7시-오후4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오는 4월 9일(토) LA 메모리얼 콜리세움(USC 축구 경기장 3911 S. Figueroa St, LA)에서 실시된다.



Azusa Now 집회를 알리는 설명회를 마친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The Call(대표 루 잉글 목사)은 ‘아주사 나우(Azusa Now)’ 집회를 위한 설명회를 2월 29일 오전 11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갖고 이번 집회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아주사 나우 한인준비위원회의 대표회장장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는 “이번 집회는 1906년에 있었던 아주사대부흥 110주년을 맞아 열리게 된다”며, “집회를 통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캘리포니아가 거룩하게 되길 바란다. 또한 미국이 영적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민 명예대회장(나성영락교회 원로) 역시 “이번 집회를 통해

영적으로 잠들어있는 미국을 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집회는 4월 9일(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흥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로 열리며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는 전도시 총력 전도 집회로 갖게 된다. 한인교회가 주관하는 집회는 집회 첫 번째 순서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10분까지다. 대회관계자들은 한인교회 주관 집회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은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집회장소인 콜리세움으로 모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집회에 불을 붙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루잉글 목사와 폴 아마빌 목사는 한인 주관 시간은 오전 시간이지만 집회가 마쳐지는 오후 10시까지 참여해 중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후 기념촬영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석달 남짓 앞으로 6월 6일 오후 6시 개최예배, 아주사퍼시픽대학교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KWMC(사무총장 고석희 목사)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은 아주사 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월레스 박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남가주를 비롯한 미주지역에 다시 한번 선교의 불길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고석희 목사는 “KWMC는 지난 1986년 빌리그레함 목사, 랄프윈터 목사, 토마스왕 목사들의 후원으로 태동했으며 2년 후인 1988년에 1차 대회를 개최해왔다”며, “88년부터 이번 8차까지 30년 역사를 달려온 하나님의 운동이다. 88년 당시에 한국 선교사들은 4백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 170개국 27000명이 넘었다.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내보낸 선교사들이지만 북미주에서도 파송해 파송순위가 2번째로 부상한 위대한 역사가 KWMC 선교운동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특징은 개최장소 변경이다. 그동안 시카고 빌리그레함 센터가 있는 위튼칼리지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남가주 아주사에 위치한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의 공동대회장이자 대표의장인 한기홍 목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하신 것”이라며, “미전도 종족지역에 복음이 급속히 전해지고 있다. 미완성 과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선교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광활한 의미가 있다. 특히 서부지역에 선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전

세계 선교사역에 중심적 역할을 서부지역에서 하고 있다. 이번 선교대회 통해서 다시 한 번 세계선교사역에 큰 불이 붙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KWMC 대회는 6월 6일 오후 6시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화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폐회예배가 열리는 10일(토) 오전 11시20분까지 새벽기도회, 성경강해, 주제강연, 선택강좌, 선교도전 및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저녁 집회는 선교대회로 영적 회복, 전인치유, 재현신의 성령대축제로 열리게 된다. 대회가 열리기 전인 6월 3일부터 6일까지 세계선교사대회(KWMP) 대회와 3차 선교사자녀(MK)대회가 함께 열리게 되며 KWMC 대회가 열리는 기간에 청소년선교대회도 열린다. 그 외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선교대회는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대회관계자들은 이번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 선교사들을 최소 1,200명 최대 1,500명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회참석인원을 4천명이 상으로 전망했다. 대회기간 중에는 의료진을 배치해 참석 선교사들을 위해 건강진료를 실시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KWMC한인세계선교대회에 대한 문의는 (516)277-2081, 2082 웹사이트 www.kwmc.com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연목회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남가주연목회 회장 이종렬 목사 이취임 예배 “연세아카데미와 같이 동문세미나 개최하겠다”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연목회)는 지난 22일 가주갈보리교회에서 연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수석부회장 김기동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정요한 목사 기도, 남상국 목사 성경봉독(사 55:6-9)에 이어 지용덕 목사는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미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조호연 목사의 헌금기도와 김영대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신임회장 이종렬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연목회를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세아카데미와 같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미 전역에 있는 연세동문 목회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종렬 목사는 ROTC 1기생으로 조선일보 최초특파원을 역임했으며 1996년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가주갈보리교회 담임목사이며 AMERICA HUNTINGTON UNIVERSITY 총장으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기사제공: 남가주연목회)



제2회 남가주한인합창단 음악회에서 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음악은 미래 향한 비전 주는 원동력” 제2회 남가주 한인합창단 음악회

남가주한인합창단 음악회(단장 김정자, 지휘 유의철)이 주최한 제2회 음악회가 2월 28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김정자 단장은 인사말에서 “음악

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용기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된다”며, “이번 음악회를 위해 모든 단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노래를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본 합창단이 ‘주님의 사랑’,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 등 성가곡과 ‘와갓길’, ‘그리움 실은 파도’ 등 가곡, 그리고 ‘위대한 약속’, ‘행복을 주는 사람’ 등 가요를 불렀다. 또 트럼펫 연주자 김경수 씨의 트럼펫 솔로연주, 기타리스트 김영수 씨가 기타솔로 연주를 했으며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소프라노 김미진, 배재코랄이 찬조 출연해 음악회를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미로슬라프 볼프, 알라 Allah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북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4개 단체, 미로슬라프 볼프 북콘서트 “알라 Allah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남가주 목회자들의 모임인 남북 제자목자모임, 기독교정의 연구모임, 그리고 평화서당

ReconciliAsian, ‘라코뮤니타스’ 인문학서적 읽기 모임 등이 공동 주관한 미로슬라프 볼프, “알라 Allah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북콘서트가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남북제자목자모임 등 4개 단체들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재영 목사(ITS 한국어프로그램 디렉터)가 북콘서트 취지 및 순서를 소개했다. 이어 김동문 선교사의 진행으로 ‘나는 이렇게 읽었다’라는 주제로 발제가 시작됐는데, 제자목자모임 측에서 주혁로 목사, 평화서당 측에서 최소연 자매 및 서대승 형제, 기독교정의연구모임 측에서 민중기 목사, ReconciliAsian 허현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박준호 기자)

남부개혁신학교 LA캠퍼스 박사과정 연합세미나



남부개혁신학교 LA캠퍼스(대표 학장 김희창 박사)는 문화교류학 선교학 목회학 박사과정 연합 세미나를 지난 2월 21일 저녁 6시30분부터 한 주간 동안 논문진척 성경강해법, 전략적선교정책 세미나를 김수영 박사, 정용갑 박사, 김경준 박사, 김희창 박사의 인도 하에 실시했다. (기사제공: 남부개혁신학교 LA캠퍼스)

동부교계 기사판



김상의 목사 소천

순복음북미총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뉴욕 순복음안디옥교회 원로목사인 김상의 목사(사진)가 지난 27일 오전 7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8세. 환송예배는 29일 오후 7시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발인예배는 3월 1일 오전 9시 30분 제미장사에서 열렸다.



▲문의: (917)864-1390, (718)938-1777

제 31회 뉴욕교협 체육대회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5월 30일(월) 제 31회 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장소는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경기종목은 배구(장년, 청년, 청소년, 여성), 축구, 축구로 참가비는 팀당 200달러이며, 축구는 300달러(선착순 8팀). 참가 자격은 회원 교회출석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신청마감은 5월 16일(월). 당일접수는 받지 않는다. 청소년팀 선수는 부모 중 한 사람은 한인이어야 한다.

▲문의: (718)279-1414

교회일보 창간 7주년기념 감사예배

기독교 인터넷 언론인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가 창간 7주년을 맞아 기념감사예배를 드린다. 일시는 3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 티켓은 100달러다.

▲문의: (718)690-6068

“충성된 사자들이 되라” ...총 66명 임직

퀸즈장로교회 설립42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임직식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설립 42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은퇴, 임직식을 가졌다.

동 교회는 지난 28일 주일 저녁 5시 열린 임직식에서 장로 2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30명, 명예권사 19명 등 총 66명의 임직자를 세웠다. 2명의 장로 은퇴식도 가졌다.

1부 예배는 김성국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뉴욕교협회장), 성경봉독 문준은 목사, 찬양대의 찬양, 말씀선포 김영수 목사(KAPC총회장), 헌금송 강혜영 집사, 봉헌기도 허준준 목사, 42주년 기념영상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수 목사는(브라질 사랑의교회 담임) “충성된 사자들이 되라”(잠25: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임직자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충성할 수 있다”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자기



퀸즈장로교회 임직식에서 집사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직분자는 담임목사와 뜻을 합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고, 먼 훗날 아름다운 일꾼으로 기억되는 직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장로은퇴식에는 윤영철, 장봉석 등 2명의 장로가 은퇴했으며 김성국 목사는 “42년 퀸즈장로교회

역사는 헌신의 역사였다”며, “두 장로님들은 헌신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이명옥 전도사가 감사의 글을 낭송했다.

3부 임직식에서는 정길표, 송동을 2명의 장로가 임직됐다. 집사는 최성호, 최진식, 계대원, 김성민, 김



새벽별장로교회 집회에서 장미은 사모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하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 24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희 목사)에서 2월 정기예배 및 월례회를 갖고 2016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진희 목사 인도로 기도 이희선 목사, 설교 김홍석 목사, 특송 안경순 관개리 목사, 합심기도 김정숙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마16:5-12)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면서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요즘 내 목회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거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며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드러나지 않은 잘못된 일을 합

리화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하는 기아대책과 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합심기도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하여 △결연아동을 위하여 △선교사(콜롬비아 김혜정, 페루 김준원 최은희, 코스타리카 김형구 이선미,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를 위하여 제목으로 기도했다.

2부 회의는 전희수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후 진행됐다. 2016년 사업계획은 △아동결연 이외에 48월 중순 콜롬비아 단기선교(모기장, 물탱크, 아동방문) △후원자의 밤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콜롬비아 단기선교는 당일 신청을 마감했다. 이찬양 간사는 “콜롬비아는 1-7급지로 나누는데 1, 2급 지역은 살상이 일어나는 위험지역이고, 동 기구가 방문하는 지역은 3급이지만 게릴라 출몰지역으로 경찰의 보호야래 한 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선교단 인원은 15명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콜롬비아 선교는 멜갈과 아구아디타, 차아, 비자데네이바 등을 방문하게 되며 마지막 날에는 지역주민 초청 집회가 계획돼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월 신규아동 7명을 포함 현재 해외 177명, 북한 6명 등 총 183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성령충만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라”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장미은 사모초청 말씀간증집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가 장미은 사모(퀸즈장로교회 장영춘 원로목사 사모)를 강사로 초청 말씀간증집회를 가졌다.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집회에서 장미은 사모는 첫날 “죽으면 죽으리라”(요12:24), 둘째 날 새벽 “하나님의 능력”(고후6:5-10), 저녁 “청지기(의)의 삶”(눅12:42-48), 셋째 날 “성령충만 받는 비결”(엡5:15-21)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첫날 장 사모는 “40년간(장영춘 목사님의 목회를 내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는지 볼 수 있었다. 42년 전 어른 3명 어린이 4명으로 시작된 퀸즈장로교회가 재직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요한복음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잃은 듯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 심

은 대로 거두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은 정성과 사랑을 심고, 땅과 눈물을 심고, 희생과 인내를 심었다니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까지 오랫동안 참여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지금까지 사용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간증했다.

또 주말오후 설교에서 장 사모는 “성령충만을 받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며, “성령충만 받기 위해 먼저 죄를 회개하고,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셋째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했다.

장 사모는 “죄지은 즉시 회개하고 회개 받은 것을 믿으며, 모든 기도응답의 비결은 목숨을 내건 간구이다. 간구한 후에는 응답받은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역설하고 “성령충만을 받으면 삶에서 나타나 교회에 충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미은 사모는 현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 교협 목사회, 네일업 관련 시위 참여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과 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등 뉴욕 교계 목회자들이 네일업 관련 혐의 시위에 힘을 보탰다.

지난 29일 밤마다 뉴욕주 청사 앞에서 열린 네일업 한인들과 중국인들이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다. 성도들 중 네일업 종사자들이 많은데다 뉴욕교협 부회장이자 네일협회 회장인 이상호 집사가 교계의 협조를 부탁했고, 뉴욕목사회와 뉴욕교협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선 것.

뉴욕목사회는 “신약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30년 동안 네일업계를 통해서 이민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교회에 더욱 귀하게 헌신하는 계기가 됐던 상황에서 이제는 계속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돌아와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할 때다. 뉴욕 시민으로써 주정부의 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고쳐나가는 것과 함께 네일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하겠다. 이제는 교계단체뿐만 아니라 목사들과 평신도 리더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인인민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미국의 번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각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목사회는 같은 날 예정됐던

임실행위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고 시위에 동참했다. 목사회는 회원 목자들에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의 부당한 처사를 호소하기 위해 같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으며, 참가하는 목사회원들의 알바니 이동 경비와 식비 등 30달러를 후원했다.

뉴욕교협 회장 이종명 목사는 “성도들의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고, 교회의 아픔이 교협의 아픔이다. 이번 시위에는 교협과 목사회 임원들이 참가할 것이다. 취임사에서 한인사회와 함께 하는 교협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뉴욕 한인들의 주요 비즈니스인 네일업이 지난해 뉴욕타임스 보도로부터 시작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부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성경공부: 화, 토 오전 10:00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8-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q.org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새)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Fax: (718)93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새)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c.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1부, 3부)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 요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9:00 Tel: (718)570-586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새)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8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k@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월, 화, 목, 금) 금요일(새)예배: 오후 8:00 금요일(새)예배: 오후 9:00 주일학교: 오전 9: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tad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학교: 오후 7:00 Tel: (5511)6692-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714중부기도회: 아침 7:40 화, 목, 금, 토요일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1, 2, 3부)새(새)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n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새)예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제97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사랑의 결혼식 후원음악회 겸해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주최한 제97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음악회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복음방송은 'GBC미래 비전과 2016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랑과 선교를 실천하는 방송'

GBC 미래 비전과 2016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임덕순 장로)은 지난 2월 23일 'GBC미래 비전과 2016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다트로 빈에서 가졌다. 이날 제4대 사장인 임덕순 장로는 GBC를 '복음만 전하는 방송'에서, '사랑과 선교를 실천하는 방송'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덕순 사장은 "이미 2월초 완료된 25개국 선교사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미주내 타도시의 순차적 지국 설립, 신학교 및 신도단체와의 방송선교사 양성 체계 구축, 다국가 선교사 지원 및 연합사역, 타 방송과 언론 매체와의 연합과 동역, 그리고 자체 모바일 앱 제작운용 등을 통해 미래의 글로벌 크리스천 멀티미디어 선교그룹으로 확장해 가겠다"는 청사진을 설명했다.

임 사장은 타 방송국과의 동역의 사례로 CTS와 협력을 들었다. 그는 CTS의 커피브레이크 프로그램을 GBC에서 방송했으며 GBC의 프로그램 역시 라디오 방송이라는 특성상 화면이 나가지 않지만 프로그램 포스터 및 사진자료를 화면으로 대체하고 음성만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CTS에서 방송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GBC는 2016년을 새로운 25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고 올 한해 동안 애나하임으로의 이적 후 LA 지국과 이월방송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성가 경연대회, 글짓기 대회, 그리고

5월 경 진행될 다민족 청소년 페스티벌 Peace & Harmony, 남가주 기독교 봉사단체 지원금 모금을 위한 연말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아주사파시피대학(총장 존 월레스 박사)에서 개최되는 KWMC 세계선교대회의 공식 주관방송사로써 대회 중 현장 생방송 계획 외에도 지난 연말 멕시코 선교현장 생방송에 이어 다국가 선교현장 출장 생방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임 사장은 "LA 사역을 매개해 2011년 1200만 불에 매입한 스테이션 구입 시 발생한 은행부채의 상당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고, 애나하임에 새로운 소규모 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직 완납치 못한 기존 부채가 남아있고 신사육도 은행 차입금을 연이 재정적으로는 아무 부담 없이 시작하는 셈이다. 그러나 은행 원리금 변제액을 낮추어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방송선교에 집중되도록 했다. 새로운 시대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미주복음방송을 더욱 사랑해주시고, 특별한 지원과 후원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도록 방송선교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복음방송은 오는 6월까지 애나하임 신사육으로의 이적을 마치고 7월부터는 신사육에서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가 주최한 제 97주년 삼일절 기념 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음악회가 2월 27일 오후 6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기념식, 3부 음악회로 진행됐다. 부회장 윤건상 목사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알렉스양 본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다며 미주 3.1여성동지회 홍순옥 회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다함께 삼일절노래를 부른 후 본회 경증회장 최향량 목사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했다.

이어 열린 3부 음악회는 영앤엘



축복교회 창립 18주년 및 담임목사 은퇴, 취임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김인경 목사 은퇴, 그레이스김 목사 취임 축복교회 설립18주년 및 담임목사 은퇴 취임예배

축복교회 설립 18주년 감사예배 및 김인경 목사 은퇴 및 그레이스 김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2월 28일 오후 4시 성황리에 열렸다.

신임 그레이스김 목사는 "담임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았다.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진돼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원규 목사(카리스교회 담임)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피터 린 텔 목사가 기도를 전했으며 전성철 목사가 인사말을, 그리고 데이비스 목사가 성경봉독 했으며 박선영 자매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김성대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며 그레이스김 목사가 교회연혁을 소개했다. 또 이성현 목사(나사렛 한인총연합회 회장)과 그레고리 갈렌 지방감독, 그리고 이병하 목사(나사렛 한인총연합회 증경총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열린 2부 김인경 목사 은퇴식은 김기환 장로, 김성현 사모, 이명호 목사, 그레이스 김 목사, 정준영 형제 등 축복교회 성도들이 김인경 목사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언급하며 은퇴와 은퇴 후의 사역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타주 및 한국에서 보내온 축복교회

스 콰이어(지휘 글로리아안), 소프라노 최정원, 에버그린여성합창단(지휘 노혜숙), 올겐 연주자 이해경, 목사장로부부합창단(지휘 데이빗리), 클라리넷 연주자 백철, LACS(지휘 김철이), 한아름찬양운동원, LAN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테너 오유영 목사, 한아름합창단(지휘 이경호 목사)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연주를 선사했다.

이날 행사는 이경호 목사의 지휘로 연합합창을 한 뒤 마쳤다.

한편 엄규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장건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가 개회기도를, 오세훈 목사(부회장)가 성경봉독했으며 민중기 목사(총련선교교회 담임)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윤영 목사(경증회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사랑의교회 맘스홈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1111 Brookhurst St. Anaheim)는 지난 2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혼과 별거 등을 통해 홀로 된 가족을 위한 '맘스홈(Mom's Home) 세미나를 열고 있다. 모두 13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는 '당신은 혼자 아님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여러 자녀들을 전문교사들이 돌봐준다.

▲문의: (714)514-6690

라크마 챔버콰이어 사순절 찬양예배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1747 S. Nogales St. Rowland Hts.)는 라크마 챔버콰이어(지휘 윤인상 교수) 사순절 찬양예배를 16일(수) 오후 7시45분에 갖는다.

▲문의: (626)965-9191

박지혜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미주기아대체기후와 장애우 지원을 위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와 함께 하는 힐링콘서트가 3월 5일(토) 오후 5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 2241 North Eastern Ave. LA)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25달러.

▲문의: (323)221-9531

PCA 제66회 서남노회
PCA 제66회 서남노회(노회장 고건주 목사)가 3월 15일(화) 오전 9시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 1101 N. Glen Ave., Pomona)에서 개최한다.

▲문의: (909)622-2324

사-전은실, 시번역-박익현, 미술신인상-이은희 에피포도 20주년 기념감사 및 출판기념 시상식

에피포도(대표 백승철 목사) 창립 20주년 기념감사 및 출판기념 시상식이 2월 26일 오후 6시30분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전은실 시인(캘리포니아) "겨울 풍광화로 가는 길" 외 8편으로 문학상 시부문 본상을 수상했으며, 시부문 번역역상 신인상에는 박익현 시인(에리조나)이 "독나무" 외 4편을, 미술부문 예술상 신인상에 이은희 화가(캘리포니아)가 "새생명"이라는 주제의 그림으로 수상했으며 문학상 심사위원인 김신용 시인(전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그리고 나삼진 시인의 "생각의

그물"과 강위덕 시인의 "미치도록 잠이 마렵다" 출판기념 감사의 시간을 가졌는데 백승철 대표가 출판기념패를 전달했으며 배정웅 시인(재미시인협회 회장, 미주시화 발행인)이 축사를 전했다.

이민미 시인(제16회 에피포도 문학상 수상, 시전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에피포도 창립 멤버이자 동인인 오소미 시인이 환영 인사 및 회고사, 정정숙 시인(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장)이 에피포도 20주년 축사를, 최선호 목사가 에피포도 20주년 기념 시집 축사를 했으며 박대근 목사(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증경 총회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오소미 시인, 강위덕 시인, 석정희 시인, 전은실 시인, 현대식 시인이 시낭송을 했으며 백승철 시인의 소감, 그리고 유가희 목사(새연약교회 담임)이 축도를 했다.

한편 이날 1부 순서로 진행된 예배는 현대식 시인이 기도했으며 정인석 목사(재미고신 서부노회 직전 노회장, 하늘꿈 교회 담임)이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삼상7: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에피포도 20주년 기념감사 및 출판기념 시상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강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강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 11:30</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p> <p>담임목사: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 11:30</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9:30(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말씀: 오전 6:30 EM, 찬양: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Walnut) /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40(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 예배: 오후 11:20 영양권(월-수, 목, 금): 오후 7: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세례기도: 오전 8: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동문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smg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포함),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1:45 세례기도(월-토):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40(월-토) 세례기도: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렐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효</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2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7:00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공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p>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목요예배: 새벽 5:30</p> <p>Tel: (213)245-4090 (팩스), 사택: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목요예배: 오전 11:00 토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960 Wilshire Blvd., #305, Los Angeles, CA 90010</p>	<p>얼버안침례교회</p> <p>담임목사: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월서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민족찬양) 세례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찬양예배: 3:55월 24:22 토</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새언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찬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토)</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C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토-일) 수요예배: 오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후 5:30(월-토)</p> <p>www.conestonemc.com / e-mail: pastor@conestonemc.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9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찬양) 주일 5부예배: 오후 5:00(찬양) 침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g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신학대학원 지원자 감소 '비상'

“정원 조정 등 신학교육패러다임 변화 필요”

미국뿐 아니라 국내 신학대학원(신대원) 지원자 수 역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학령인구·다음세대 기독교인 감소, 한국교회의 신뢰도 추락 등 복합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국내 신학대 교수들의 견해다. 국내 신대원들은 2000년대 중 후반부터 계속된 학생 수 감소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10년을 전후로 국내 신대원 지원자 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국내 주요 교단 소속 신대원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지원자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2013년 석사과정 300명 선발에 986명이 지원했는데 2015년엔 이보다 162명이 줄어든 824명이 지원했다. 경쟁률도 자연히 낮아져 2013년엔 3.3대 1에 달했으나 2015년엔 2.8대 1로 나타났다.

매년 감소하는 신대원 지원자

2010년 무시험·특별전형을 제외한 선발인원 316명에 1319명이 지원해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총신대학교 신대원도 현재 지원자 감소로 고전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총신대 신대원 지원자는 964명으로 경쟁률은 2.5대 1이다. 2010년 이 학교에 입학한 졸업생 A씨는 “당시 신대원 준비생들 사이에 ‘재수, 삼수는 기본’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정수생이 많았다. 지금은 한 번에 합격하는 지원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목회자 공신력 저하’ 등이 원인

신대원 관계자들은 지원자 감소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들 중 가장 큰 원인으로 ‘한국교회의 쇠퇴’를 꼽았다. 심상법 총신대 통합대학원 부총장은 “교회와 목회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이 여러 번 생기면서 기독교에 냉소적인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며 “

이런 사회 분위기로 목회에 자부심을 갖고 전도나 선교에 뛰어드는 학생이 점차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주일학교 쇠퇴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박상진 장신대 신대원장은 “다음세대 인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이 학령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 신학교에 올 사람 자체가 크게 준 상태”라며 “7-8년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원지는 말라가는데 신학교 정원은 그대로라 군소 교단 소속이나 지방 소재 신학교의 경우 매년 심각한 미달 사태를 빚는다”며 “미국처럼 구조조정의 시간이 오기 전 신대원 정원 조정 등 신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학도·유학생 등 유치 나설 것”

신대원 지원자 감소에 대처하는 방법은 학교마다 다양하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장신대

신대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 연연하지 않고 입학 기준을 더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장은 “목회자 자질을 철저히 검증키 위해 입학시험에 인문학을 추가하고 면접시간을 10분에서 100분으로 늘렸다”며 “위기를 기회삼아 자질 있는 목회자 양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거나 직장인, 만학도를 겨냥한 수업을 개설하는 신대원도 점차 늘고 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선교지의 현지인 사역자를 육성하기 위해 10여년 전 도입한 외국인 신학석사 프로그램 IGST는 해마다 지원자가 늘고 있다. 감신대 신대원은 IGST와 함께 직장인, 고령 학생을 배려해 주로 오후에 수업을 진행하는 목회신학대학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래 감신대 대학원장은 “선교지 현지인들이 한국 신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인생 이모작의 일환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더 늘 것으로 보고 대비할 계획”이라며 “향후 신대원은 학생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션라이프]

WEA 세계지도자대회 개막

“세계교회, 복음 안에서 하나…한반도 평화 함께 기도”

세계 복음연맹(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지도자대회가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서울에서 개막했다. 100여명의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 안에서 동역’이라는 주제 아래 5일까지 세계교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선교 전략을 세운다.

개회예배에서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세계지도자대회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계지도자대회 기간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은 세계지도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겠다”면서 “세계지도자대회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을 힘써 지키는(엨 4:3) 대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독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세계 교회로부터 복음의 빛을 전해받은 한국교회는 이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소임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고, 세계교회 가운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길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계 지도자들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

며 토론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부흥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병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길자연 서울 왕성교회 원로목사,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 등도 영상으로 축하했다.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설교에서 “사람의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강조하셨다”며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사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자. 이 일에 WEA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남북한은 물론 아시아, 세계 문제를 넘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강석 용인 새에덴교회 목사는 축사를 낭독하고 김선도 서울 광림교회 원로목사가 축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중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 안철수 국민당의 공동대표도 영상 축사를 했다.

여야,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을 조장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29일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나라와 교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도회는 4·13총선을 앞두고 동성애와 이슬람 극단주의 등 기독교가 경계하는 움직임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들여보자는 취지로 열

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불참했다.

김 대표는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기도운동 등을 벌이며 국민의 통합과 난국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대한민국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새누리당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개화기부터 함께한 기독교의 정신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더민주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

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계 지도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막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회장은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며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꾼을 뽑아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래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길자연 전 한기총 대표회장이 설교했으며 이용규(성남성결교회) 최홍준(부산호산나교회) 원로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기도회 후 한기총, 한교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장로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는 ‘동성애, 이슬람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의 국회 입성을 총력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기독교자랑 이외의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자랑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연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은?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 3분의 2가 남북통일이 15년 내에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는 등 통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운동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부족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사장 김지철 소망교회 목사)은 25일 서울 동작구 송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교회 목회자 통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목회자 300명과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통일 당위성과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탈북자에 대한 이해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일반인 10명 중 8명은 비기독교인이었다.

목회자 3명 중 2명 “15년내 통일 가능”

한반도평화연구원 발표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목회자는 84.7%, 일반인은 6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는 ‘남북 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목회자 82.7%, 일반인 71.3%)가 가장 많았다. 통일의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두 집단 모두 점진적 통일을 희망하는 이가 훨씬 많았다. 목회자 75%, 일반인 64.3%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점진적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통일 시점에 대해서는 목회자 26.7%와 일반인 15.3%가 ‘5년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목회자 39.3%와 일반인 33%가 15년 이내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 개혁개방’(목회자 80%, 일반인 64%)이라는 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방해요인으로는 남북 간 군사적 갈등(목회자 71.3%, 일반인 64.3%)을 꼽은 이가 가장 많았다. 전우택(연세대 교수) KPI 원장은 “군사적 갈등은 남북 간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목회자 30.3%, 일반인 25%만이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모델로서 성공적이라는 응답(목회자 55%, 일반인 45%)과 개성공단과 같은 모델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목회자 62%, 일반인 50.7%)는 의견이 다수였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물리적 타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집단 모두 62.3%로 주를 이뤘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목회자 77% 일반인 57.3%가 동의했다. 박수일 KPI 연구원은 “북한정권은 심지어 북한 주민은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

에 따른 결과”라며 “북에 대한 이중적 인식 때문에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통일에 대한 입장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탈북자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목회자 83.7%와 일반인 64%가 ‘탈북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장로(고려대 명예교수) 전 KPI 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교회가 탈북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통일 과정에서도 교회가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의 통일준비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8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법(중복응답)으로 통일기금 조성(74%), 통일관련 설교하기(74.7%), 통일관련 세미나·강연 개최(72.3%), 통일기도회 개최(7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회 차원의 통일기금 준비 및 통일세 납부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관련 설교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는 32.3%, 대북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는 32%에 그쳤고, 통일관련 세미나·강연이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40%를 넘지 못했다.

결과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성빈(장로회신학대 교수) KPI 부원장은 “신앙적 차원의 통일 준비는 자신의 유익에 대한 포기나 용서, 미래지향적 소망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교회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통일운동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운동 정신 되살려 한국교회 다시 일으키자”

3·1절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주요 기관 교단 대표 대거참석

“한국교회가 3·1운동의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킵시다.” 불을 시샘하듯 거센 눈발이 몰아치던 28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새롭게 되살리자는 한국교회의 외침이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 가득 울려 퍼졌다.

이날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가 주최하고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주관한 ‘제97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시종일관 숙연하면서도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엔 교계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장 이경숙 권사(전 숙명여대 총장)가 대표기도를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목사는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만이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걸 알았던 분들”이라며 “독립만세 외침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의 참된 자유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외친 함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면서 물질주의, 세상권력, 이기주의, 탐욕과 교만의 노예가 돼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3·1운동의 바람, 다시 일으키자’는 제목의 특강에서 “3·1운동 정신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을 고대하던 신앙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킨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소목사는 “한국교회는 3·1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민족의 정신적 기초요 희망이었다”며 “한국교회와 3·1운동 정신을 고양해서 이 시대에 민족과 조국을 섬기는 귀한 정신적 진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기념식에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 등 11명의 교계 지도자가 독립선언문 축약본을 교독했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3·1운동은 용기 있는 교인들이 고문과 죽음을 각오하고 당당히 나아가 참된 용기였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갖고 3·1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내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을 살린다면 한국교회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생 동성애 옹호 확산은 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5일 신학대 내 동성애 옹호 움직임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최근 장정에 목회자 중 동성 결혼과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를 할 경우 정직·면직·출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면서 “이에 맞서 ‘성소수자 탄압 장정을 반대하는 감리교신학생 및 전도사모임’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마치 기

독교가 동성애자를 탄압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동성애자들의 왜곡된 인권 전략에 속은 것”이라며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 확산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동성애자들의 공격적 목적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으며,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학교 내 동성애 옹호 여론 확산은 한국교회의 위기와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일부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굴절된 인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지지·옹호하기보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

다”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동성애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다. 오히려

탈동성애 운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 반대 포항교계,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포항지역 교회들이 28일 오전 주일예배를 드리고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 반대 등을 위한 ‘기독인 1000만명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포항중앙교회, 제일교회, 기쁨의교회, 장성교회 등 지역 400여개의 교회 교인들은 이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슬람 확산 반대에 서명했다.

이들 교회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에이즈 환자 수가 늘었고 에이

즈가 동성애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소수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살리기, 저 출산 문제 극복, 북한 핵 폐기 등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중국 종교정책의 상반된 신호 (2)

-저장성정부 요인이 삼자교회 핍박하는 동시에, 북경 중앙정부 요인은 가정교회 지도자들 만나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전망

4개의 계획안이 필요하다. 1. 핍박: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는 반 기독교적 국내 캠페인을 통하여 공격을 받는다. 2. 형상유지: 가정교회는 불법으로 남아있고 정부의 압력 하에서 진행된다. 3. 법적 인정: 가정교회가 정부의 제한과 압력을 받으면서 법적 인정을 받는다. 4. 교회와 정부의 분리: 가능성이 제일 없고 교회에 가장 위협한 상황을 초래한다.

■주일학교, 청년회, 학생과 청년사역, 가정, 결혼, 상담사역, 교회출판이 성숙하게 이루어진다. ■기독교인이 공개적으로 이웃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빈곤한 사람과 노숙자들을 위한 사회사업을 할 수 있다. ■지역 NGO, 고아원, 가난과 재난구제 사역을 기독교인의 간증으로 합법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유익가운데 하나는 중국교회 가 장래 세계 선교운동에 공개적으로 동참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가정교회를 환영하는 기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북경의 한 가정교회 목사는 희망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핍박이 오던 안오던 교회는 그 선교사명을 계속 완성할 것이다. 선교중국2030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때가 왔으며... 2030년까지 2만 명 중국선교사를 파송하기를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가정교회의 최후의 법적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기억해야 한다.

1. 중국의 복음화는 근본적으로 중국기독교인의 책임이다. 그 이유는 선교전략은 원주민 교회와 동반자의 관계를 맺고 중국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교회가 법적인정을 받으면 종교자유를 제한하는 보안법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외국의 영향력 집투는 중국 내부 상황에 침투하는 것으로 취급할 것이다.

2. 가정교회 합법화는 더 많은 특수하고 직업적 사역이 번성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각 지역교회는 자기의 특별한 사역과 아울러 비 교단단체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건강한 가정교회 성장, 정부도움 받는 삼자교회는 사라질 것 서구·한국 선교장단점 배우고 해외선교에서 세계적 교회대야

제일 나쁜 가능성 1번에는 핍박이 교회를 강하게 만들며 어느 날 지상교회로 되기 위한 준비이다. 자유 가능성 4번은 좋지만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도전으로 교회가 쇠약해질 수 있다. 가능성 3번은 교회를 위해 제일 호의적이며 제한된 종교자유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들고 어느 정도의 압력 속에서 교회를 날카롭게 만든다.

가정교회 합법화에 대해 많은 논쟁을 해왔다. 많은 도시 가정교회들과 큰 시골교회들은 새로운 개방을 환영하는 동시에 핍박을 경험한 많은 정통적 가정교회들은 계속 숨겨진 상태를 선택한다. 정부와 교섭하는 것은 신앙을 양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등목한 삼자교회나 등목하지 않은 가정교회는 중국교회를 오래 동안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인정의 유익

많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회로 이전하는 것을 옹호하는데 대해 아주 조심히 여긴다. 그 이유는 세계교회는 현재 막대한 자유 속에서 쇠퇴하는 서양기독교를 바라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형하는 중국교회를 기독교의 모델로 이상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마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과 비슷한 또 다른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전의 핍박과 고난이 깊은 영성을 초래했고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급속도 교회성장과 26,766명 한국 선교사(2014년)를 170개 국가에 파송한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져 왔다.

법적 인정은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 ■가정교회는 법적보호로 건물과 시설을 살 수 있다. ■지하신학교들은 장래 교회지도자 양성을 표면적으로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가 2015년 9월 홍콩에서 열렸을 때 중국에서 850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들의 비전은 "2030년까지 20,000명 중국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법적인정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선교조직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분열은 천천히 사라질 것이며 참된 화해가 시작될 것이다. 또 한가지 일어날 결과는 삼자교회운동이 상대적인 가정교회를 더 넓어갈 것이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변화는 참된 삼자원리인 "자치, 자급, 자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자유로운 종교시장속에서 정부의 도움과 지도에 의존하고 있는 삼자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며 반면에 건강한 삼자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불확실한 점들

새롭게 떠오르는 많은 요소들이 중국 기독교를 반대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시주석은 정부의 부패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저경제성장을 (6.5%)이 정부의 신경을 자극시켰으며 밀지 않은 장래에 국내의 불안과 근심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반미 감정이 나날이 늘어 가는데 이것은 근래 중국 남해섬에 대한 군사적 충돌 때문이다.

2016년 대만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당을 제치고 야당 진민당의 주석 채영문이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앞으로 대만 독립운동 방향으로 기울어 질수 있다. 또한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이 가열될 수 있으며 결과로 중국교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중국교회는 세계선교 안에서 배우는 자세를 선택해야 한다. 중국교회는 과거의 서양교회와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장단점을 배우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의 크기만큼 생각해도 복음을 형상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해외선교에 관해서는 중국교회는 세계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 자신들이 선교지로 갈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왜 서양의 대형교회와 "선교하는 교회"(Missional Church)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일은 신앙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묻는다.

결론

중국의 복잡한 상황들은 세계교회를 계속 혼란케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신묘태동 민주주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시간이 말할 것이다. 그러나 희망은 계속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가정교회의 합법화를 위한 실용주의나 혹은 더 옹호하는 정치적 조건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중국과 그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전 세계교회가 올리는 기도를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기쁜 소식이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예정하신 영적사역이 여러 중국 최고 지도자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근래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잘 이해가 안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선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끝)

rohonolulu@gmail.com

선교 소식

뉴욕예일교회 단기선교팀 니카라과 사역

지난 2월17일부터 22일까지 뉴욕예일교회 담임목사인 김중훈 목사를 비롯한 40명의 단기선교팀이 니카라과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김인선 선교사가 개척한 하나님의사랑교회(Iglesia Dios es Amor)를 비롯하여 지난 2002년 이동홍 선교사가 니카라과에서 처음으로 개척하고, 뉴욕예일교회 단기선교팀이 벽돌을 쌓아 올렸던 마사야예일교회(Primera Iglesia en Masaya)와 뉴욕예일교회 후원으로 이동홍 선교사가 16번째로 니카라과에 개척한 예수제일교회(Iglesia Jesus Primero)에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안경검안, 침술,



침술, 미술, 페인팅 사역을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은 물론 북춤, 드라마, 부채춤 등 특별 순서들을 통해 니카라과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1일 주일에는 이동홍 선교사가 니카라과에 개척한 16개 장로교회들이 함께 오영관선교사가 세운 나실인공동체(Comunidad Nazareo)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모두 7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찬예식에 이어서 오후 3시 예수제일교회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제일교회는 뉴욕예일교회 율리우 장로 부인되는 고 강혜옥 권사를 기뻐하여 대지 구입과 성전 건축을 뉴욕예일교회에서 지원하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난 1월 6일 대지를 매입하고 1월 7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불과 42일 만에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함께 기도도 공사를 시작하여 열심히 일하며 기도도 완공한 성전입니다. 니카라과 한인선교사들을 비롯하여 현지인 목회자들 그리고 예배당 안은 물론 밖에까지 많은 인원이 모여 함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 하였습니다.

"Pacayita para Cristo", "빠까야를 그리스도에게로"를 열창하며 뜨겁게 헌당예배를 드린 후 소망교회(Iglesia la Esperanza)와 마사야예일교회(Primera Iglesia en Masaya) 워십팀의 축하 공연, 그리고 뉴욕예일교회의 북춤, 드라마, 부채춤으로 천국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예찬의 교제를 나누며 성전을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외쳐 봅니다! 'Pacayita para Cristo'

2016년 2월 23일 니카라과 마사야에서 이동홍 선교사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선교 펴기

아프리카 도도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롬6:4b).

그리스도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의 은혜를 입은 동역자분들께 안부를 전하며 선교기도편지를 드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목메어 기다리던 비가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도도마 사람들이 내리는 비에 옥수수를 심고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풀들을 매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성도들은 우기철을 맞아 옥수수 농사를 짓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 주일이지만 이곳의 형편은 다릅니다. 대개 크리스마스가 풍족한 추수 감사주일이 지나며 한해를 결산하는 때에 다가오지만 이곳 아프리카 도도마는 12월에서 3월까지가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마치 한국 이전의 보리 고개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크리스마스는 그렇게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은 건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푸투가교회는 이전에 사용하던 마을회관 건물에서 나와 임시로 벽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



가난한 이웃들에게 옥수수를 나눔



기도하는 아이들



성경공부

의 은혜만이 이분들의 배고픔과 고통의 삶을 어루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은 건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푸투가교회는 이전에 사용하던 마을회관 건물에서 나와 임시로 벽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교인들의 열정으로 7000장 이상의 흙벽돌을 불에 구워 놓고 건축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음파랑가교회는 수년이란 긴 시간동안 숲을 팔아가며, 벽돌로 벽을 다 쌓아놓고 마지막 건축의 과정인 지붕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일은 뜻 있는 몇 분들이



집회 기도



숲을 만들어 팔아 교회를 지음



전도집회중 병남기를 위해 기도함

이곳 목회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쫓소, 당나귀와 오토바이 등 7분의 목회자 생계를 위해서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천사유치원은 개교를 했지만, 지난해 비해 반으로 줄어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는 초등학교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초등학교 시설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초등학교가 지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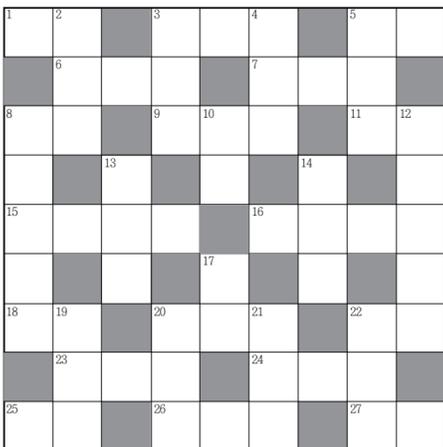
단순한 일반학교가 아닌, 가난하여 학비조차 낼 수 없고, 부모들이 없는 고아들이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과 교육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제목

1.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갈 수 있도록
 2. 도도마 사역을 위해 미주베델한인교회에서 40FT 컨테이너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부두에서부터 도도마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 사역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3.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미주베델교회를 중심으로 단기팀들이 도도마로 옵니다. 단기팀의 준비와 현지 사역의 준비들을 위해서
 4.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천사 유치원, 초등학교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가 지어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치푸투가, 음파랑가 교회와 사택 건축을 위해서
 6. 모바일 성경학교를 다시 개강 하려고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처소인 천막과 술라 시설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7. 선교부안에 다용도 홀과 식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8.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치료를 해주시고 받게 해주신 여러 손길들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9. 저희들의 영적 회복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10. 외지에 개척된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와 교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 아프리카 도도마에서 황광인 영숙 선교사 드림

십자말 • Cross Word (116)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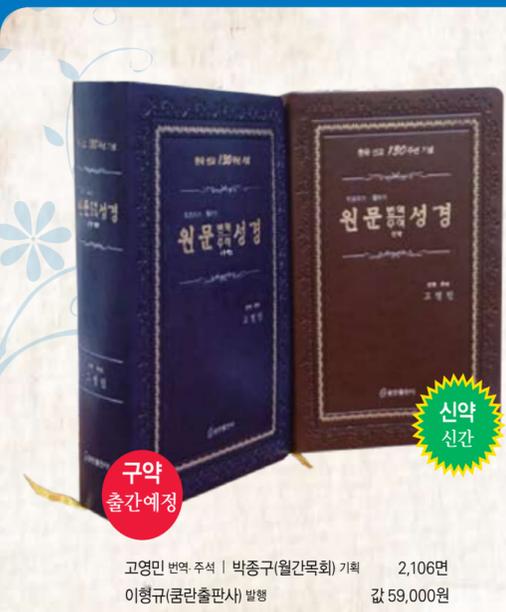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아버지의 무릎 아래(창50:23).
3. 히스기야 시대의 한 레위 사람(대하31:15).
5. 여러 형제 중 맨 마지막으로 난 아이(국어).
6. 사하라임이 호데스에게서 낳은 아들(대상8:10).
7. 망어하며 경계를 위하여 배제된 군대(삼상13:3).
8. 어지간하게(잠15:17).
9. 생각할 사이도 없이 급히(민12:4).
11. 기이한 일(출11:9).
15. 삶에 놓고 활개를 맞본다는 뜻으로,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롭고 어려움을 참고 견딤(고사성어).
16. 여호와와 궤를 실은 수레를 암소 두 마리가 OOOO 길로 바로 행하였다(삼상6:12).
18. 유다의 아들로서 셀라의 자손(대상4:21).
20. 기드온이 미이안 왕과 싸우러 갈 때에 이 성 사람에게 떡을 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망대를 헐고 성 사람들을 죽임(삿8:8).
22.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처 밑가가 낳은 둘째 아들(창22:21).
23. 베냐민의 가족의 조상(삼상10:21).
24. 일을 시킴을 당하는 자(삼상27:12).
25. 돌로 만든 술(상식).
26. 벨라의 아들(대상8:5).
27. 간절하고 극진함(창50:21).

<세로 푸는 열쇠>

2. 어찌하였든지, 어찌든(고후12:16).
3. 모압 땅에 있던 성읍(렘48:1).
4. 모세오경 중 이구조사를 다룬 책.
5. 가늘고 긴 나무나 대(수11:7).
8. 주께서 준비하여 주심(창22:14).
10. 제 스스로의 금지(사49:6).
12. 아하수에로 중에 있는 내시(에2:14).
13. 보통과 다른 상태에서(욘33:15).
14. 권력과 세력을 가진 자(롬8:38).
17. 때를 빼거나 씻어낼 때 쓰는 물건(렘2:22).
19. 매우 크고 묵직한 술(명사).
20. 가나안에 들어가 쫓아낸 족속 중의 하나(출33:2).
21. 레위지와 고핫의 손자, 웃시엘의 둘째 아들(레10:4).
22. 아버지와 아들 사이(렘13:14).

십자말 정답



히브리어·헬라어 원문번역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히브리어·헬라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약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세계한인 기독교 언론협회 독후감 장려상

장려상 김영임 (시카고 밀알교회 원로목사 사모)



“5가지 사랑의 언어” 를 읽고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4:8)”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사람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에 대해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으므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의 제목부터 마음에 들어 책을 사게 되었고 작가가 시카고에서 인류학을 연구했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만 와서 시카고에서만 40년이 넘게 살아왔으므로 이우집 아저씨 같은 친근감이 들어 책을 읽다가 공감되어 이 책의 독후감을 쓰기로 했다.

나는 몇 년 전에 친지의 초대로 독후감을 발표하는 자리에 처음 기본 적이 없다. 그때 독후감을 발표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의 독후감은 너무 비판적인 것 같아 불만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독후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저자 게리 채프먼은 이 책은 사회학과 심리학 교수들이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해 강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에 빠져 감정에 취한 사람들이 서로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부른 꿈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현실을 만나 그 꿈을 송두리째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결혼한 부부들의 사랑의 잠재력이 발휘되어 인류에 공헌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위의 책은 이론율이 높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꼭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5가지 사랑의 언어’의 내용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인데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거나 작가가 상당한 경험을 쓰고 있다.

사랑의 언어 #1의 ‘인정하는 말’에서는 성경말씀 잠언 18장 21절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과 친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잠언의 말씀(12:25)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었다. 저자는 마크 트웨인의 “나는 한번 칭찬 받으면 두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1년에 6번 칭찬받으면 1년 동안 사랑의 탱크는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은 겨우 6번의 칭찬이지만 그 위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어란 상호간에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랑을 말로 전달하는데 있어 부드럽고 온유한 말은 더욱 효과적 인 방법이 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다. 저자는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온유한 말을 쓰라고 강조하면서 솔로몬의 잠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15:1)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겸손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랑의 언어 #2의 ‘함께하는 시간’에서는 한 가정의 예를 들면서 완전한 집중이 있어야 하며 진정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제적인 요령을 요약해 놓았다. 또 저자는 말하는 법 배우기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마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번 1세월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다. 살아가기 위해서 미국 땅에서 영어를 배우며 또 어떤 이들은 스페니쉬를 배우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 왔던가를 생각하면 이 모든 과정이 진정한 대화인 사랑의 언어를 하기 위한 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언어는 이를 구사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자는 성격에 대해서 ‘사해(死海)형’과 ‘시냇물 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성격의 형태였으나 매우 흥미로운 성격 형이었다. 첫 번째 유형은 사해 형인데 이 사해는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사해에 이르게 된다. 사해는 어느 쪽으로도 물이 나갈 수 없고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형의 성격은 매일 많은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정보를 보관할 큰 탱크는 갖고 있으나 그것들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수십 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사해에서 수영했던 생각이 났다. 내가 수영은 잘못했지만 사해는 짠 소금물이라서 저절로 동동 떠다니면서 즐거웠던 생각이 나며 내 성격은 사해형의 성격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그 반대 유형은 시냇물 형인데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안으로 다 내보내는데 답이 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가 만나면 처음에는 서로가 참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매료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므로 사해 성격의 소유자는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시냇물 성격의 소유자는 듣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는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는 활동에서 저자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까이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가끔 탁구를 치면서 서로가 잘한다고 웃으며 소리칠 때가 있다. 저자는 어떤 사람에게서 사랑을 큰 소리로 전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다.

사랑의 언어 #3는 ‘선물’이라고 했다. 인류학자들은 문화 양식에 매료되는데 선물이라는 것이 문화적 장벽을 초월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사랑이란 반드시 주는 것을 수반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위의 말이 다소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상당히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또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했으며 이런 선물에는 자기 자신의 선물도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선물’ 혹은 ‘존재의 선물’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선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내 남편이 쓴 선물이란 제목의 시가 떠올랐다. 나는 그 시를 즐겨 읽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선물을 줄 때 이 시도 함께 보낼 만큼 좋아하기에 여기에 일부를 적어본다. “아담은/ 갈빗대를 주고도/ 아까워하지 안했고/ 주님은/ 목숨을 주고도/ 되물리지 않았으니/ 참된 선물/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좋은 것/그 귀한 값/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가장 귀중한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생각하니 잠시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랑의 언어 #4는 ‘봉사’인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봉사를 억지로 하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사랑은 자유롭게 주는 것이며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부탁할 수는 있지만 명령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사랑의 언어’로서 봉사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정력을 요구하는데 자발적으로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몇 가정의 예를 들어 봉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랑의 언어#5는 ‘스킨십’에 대해 쓰여 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했다. 이 스킨십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인데 사랑 하기도 하고 미워하게도 한다고 했다. 아이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와 어른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위기와 스킨십’이라든지 ‘결혼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라는 내용에는 저자의 상담 경험을 통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랑의 접촉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가정의 생명줄과 같다고 했다. 인간의 5가지 감각 중에 촉각은 신체 전반에 퍼져 있으며 뇌에 전달되면 그것이 더운지, 찬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를 우리가 감지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는데 또한 그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감각의 신경학적 이해가 아니라 심리학적 중요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사랑하게도 하고 미워하게도 한다고 했다. 어떤 사회든지 이성 간에 허용되는 신체접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접촉이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다른 점도 말해주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성희롱은 적절하지 못한 접촉에 대한 좋은 본보기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각 분야의 사랑의 언어에 대하여 Tip 을 써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법도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랑은 선택이라 말하면서 사랑이 과거를 지워주지는 않지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글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처음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젊은 부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책 정도로 생각되었으나 읽어갈수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 귀중한 글인 것을 알았다. 마지막 부록에 나오는 FAQ에서는 아주 세밀한 질문과 답이 나와 있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검사하는 남편용과 아내용 표본에 우리 부부는 각각 점수를 기록한 후 서로의 사랑의 언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의 사랑의 탱크를 채우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면서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열심히 암기 했지만 지금은 다 외울 수도 없게 되어 있음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장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독후감을 끝맺는다.

youngyoungym@yahoo.com

youngyoungym@yahoo.com

youngyoungym@yahoo.com

hanmac@cmi153.org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구원의 의가 기준이다(마5:20-21)찬265장

그 왕은 천국 백성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 하십니까? 첫째, 믿음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20).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이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얻은 믿음으로 보여진 의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시작 부터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둘째, 내면의 진실 본위를 강조했습니다

(21-22). 살인도 내면의 미움과 그 동기가 지 포함시켰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 태도가 중요함을 보였습니다. 어떤 외식 주의 곧 인간주의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진실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진실 본위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합니다.

화 화목의 원리(마5:23-26)찬94장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목 본위이어야 합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 제물보다 앞섭니다. 제물을 드리려다가 원망들을 많이 생각하면 먼저 사 화(사과하고 화해하다)한 후 드리라고 한 것은 개인적인 화목이 얼마나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형제간의 화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화목이 최 급선무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재판할 거리가 있을 때 급히 사화하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대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 화목이 최 급선무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재판할 거리가 있을 때 급히 사화하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대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 성결의 원리(마5:27-32)찬241장

성결과 화평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히12:14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성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먼저 가정의 기본단위인 부부 간에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간음은 외형적인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27-28).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행위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한 것은 마음의 동기부터 엄중 하게 다루심으로 부패한 인생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셨습니다. 둘째, 마음의 성결 본위여야 합니다. 음행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말씀하심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차라리 몸의 불구보다 마음의 불구를 더 심각 하게 다루라고 하십니다. 셋째, 음행만이 이혼의 조건입니다(32).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의 무서운 죄를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 안의 부부생활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목 신실본위의 삶(마5:33-37)찬447장

여전히 주님은 사람관계의 신실함을 강조 하셨습니다. 맹세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신실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변하기 잘하는 인간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33-35). 헛맹 세는 인간의 약함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기 에 인간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의 뜻이라면 하리라는 주님 중 심한 삶을 따라야 합니다(36).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주인

되심을 인정될 때 인간의 허영과 헛된 자랑 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일에 현실 의 진실과 정직함을 힘써야 합니다(37). 세상 적 변역철학의 영향으로 수단방법 안가 리고 목적인 달성하면 된다는 식은 모두 진 실주의를 벗어난 일기기에 하나님의 온전함 보다 세상의 온전함을 이루려는 자력종교를 만듭니다. 성경은 그 표준을 하나님의 진리 방법으로 하계하십니다.

금 복수물을 금하심(마5:38-44)찬383장

율법에서 가르치는 복수물은 복음 안의 사랑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 모든 죄를 대신 당하심으로 복수가 변해 사랑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사랑 이 인간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는 까닭은 부패한 인간은 자율주의(인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이르기엔 절대 무력함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둘째, “...때문

에” 사랑에서 “...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할 때 이런 난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함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요15:). 스테판(행7:60)과 야곱의 마음의 변화(창33:1-10) 는 모두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토 온전한 삶(마5:45-48)찬208장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요구는 그리스도인 구원생활의 대현장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까? 첫째,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거룩임을 인정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먼저 그의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일에서부터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조건적 사랑으로는

결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 무조건적으로 사랑 하는 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주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을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포기해선 안됩니다. 그 과정 속에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Global Gateway University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DYNAMICS 다이내믹스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충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사탄의 속임수인 꾀계에 다시 농락된 결과다. 이 풍요로운 대명 천지를 만든 것이 다 사람들이 탐 흘려 수고한 결실이라고 한다. 한국에도 이는 팽배되어 있다. 한강의 기적이니 새마을운동의 산물이니 하면서, 백세시대를 노래하는 기성세대들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는 젊은이들에게 무용담이라도 들려주듯 보릿고개를 겪으며 허리띠를 졸라맨 채 밤을 낮 삼아 일하느라 굶어진 손마디라고 거칠어진 손을 표창장처럼 내보이기는 하지 만 한국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신명기 11장 8-12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개하고 있다. 구약의 곳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는 가나안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거짓이다.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와 사막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는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곳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행위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곳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그의 눈길이 머무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말씀으로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된 것이 이 세상이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와 행위는 이렇게 다르다. 가난하고 척박하기로 말하면 한국의 이전은 더 심했다. 그런 한국을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눈길을 두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 사람의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뤄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단 9:24)

미주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 세미나

일시: 2016년 3월 1일~3월 2일 오전 9:30~오후 11:30

장소: 한미장로교회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강사이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미국테네코 석유회사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초청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자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P.O.Box 610179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협찬: 남가주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천비전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크리스천헤럴드, 우리복음방송, Ch TV

사모 영성 세미나

"이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초청합니다."

주제: "사모도 목회자다"



강사
이성자 사모

- 강 사 : 이성자 (목회학 박사)
- 일 시 : 세미나 강의 3월 1(화)-2일(수) 1시 오후 -4시 오후
저녁 집회, 2월 28일(주일) 오후 4시
3월 2일(수) 저녁 7시 30분
- 장 소 : 세계 아가페 선교 교회
- 주 소 : 933 S. Lake St., Los Angeles CA90006
- 세미나 참석 문의 전화 : 213-820-9414, 213-500-8778, 714-892-9578

- 인천 교육대학교(문학)(BA)
-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육 및 상담)
- 미국 California Trinity Bible College & Seminary 대학원 (신학 Th.M)
- 미국 Indiana Grace 대학원 (목회학 D. Min)
- 1급 정교사 및 15년 교직 (교육공무원) 근무
- 2급 상담사 자격 취득 (연세대학교)
- 월간목회 주최 전국목회자사모수기 현상 모집 당선(특등)
- "제목: 영문 밖의 길이라기에"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국 목회자
- 사모세미나 및 국내외(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오스트리아) 사모세미나 강사
-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사모
- 세종 평화의동산 부원장

협찬: 남가주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천비전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크리스천 헤럴드, 우리복음방송, Ch TV

사랑의 결혼식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시다.
여러분의 결혼식을 도와 드립니다.

장소: 중앙루터교회

987 S. Gramerey Pl. Los Angeles, CA 90019

일시: 2016년 5월 28일 (토)

문의: 김영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담당 부회장)

(310)404-4219, (213)820-9667

(장소, 꽃 장식, 드레스, 턱시도, 주례 등 제공)

협찬: 중앙루터교회, 큐앤큐보석, 계정자꽃집, 웨딩하우스



남 가 주 한 인 목 사 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President, Rev. Kyu Su Um, Ph.D.
후원 및 광고 문의 Tel: (213) 820-9414 • (949) 705-7879
보내실 주소: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Pay to Order: SCKMA